| 보도자료 |
| --- |
| 본 자료는 11월 2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
문 의
동 향 분 석 실 장 (02) 3299-3205
강두용(거시) 010-2466-1057
성장동력산업센터장 (02) 3299-3290
장윤종(산업) 010-5242-9063

# 2012년 경제·산업전망

2011. 11. 24

KIET 산업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& Trade

# < 목 차 >

<요 약> ····· i

## I. 거시경제 전망 ····· 1

1. 국내 경기상황 판단 ····· 1
2. 대외여건 전망 ····· 4
3. 2012년 국내경제 전망 ····· 10

## Ⅱ. 주요산업 전망 ····· 24

1. 2011년 동향 ····· 24
2. 2012년 전망 ····· 26
3. 정책적 시사점 ····· 39
4. 주요 산업별 2012년 전망 요약 ····· 42

# <요 약>

## Ⅰ. 거시경제 전망

□ <u>현 경기 판단 : 회복세 둔화 추이</u>

○ 국내 경기는 2분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이

- 상반기중 높은 증가세를 이어왔던 수출이 선진권 부진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최근 들어 증가세 둔화

- 내수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세가 하반기 들어 크게 둔화

○ 선행지표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회복세 둔화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

□ <u>세계경제 : 선진권 부진으로 성장 둔화</u>

○ 세계경제는 유로권 재정위기의 영향과 선진권 전반의 재정불안에 따른 긴축선회 등으로 선진권 부진이 지속되고 신흥권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4% 내외의 성장을 예상

- 유로권 재정위기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로서 상당기간 선진권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

- 중국은 최근의 성장둔화 추세가 2012년중에도 완만하게 이어질 전망

□ 국제유가 및 환율 : 유가 소폭 하락, 원/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 예상

○ 국제유가는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라 보합세 내지 소폭 하락을 보일 전망

○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, 달러 약세 등으로 하락 기조가 이어질 전망

□ 2012년 경제성장 : 연간 GDP 3.7% 성장 전망

○ 국내경제는 2012년 연중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%대 중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

○ 부문별로는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고 내수는 전년(2011년)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

- 민간소비는 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GNI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

- 국내외 경기둔화 및 불확실성 증가의 영향으로 투자는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

○ 유로권 재정위기, 선진권 경기부진 등 대외부문 불안이 가장 큰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,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이 주요 하방 위험요인

- 유로권 재정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전개과정에서 심각한 금융불안을 유발할 경우 세계경기 급락과 더불어 국내에도 큰 타격을 미칠 가능성

□ 민간소비 :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가로 3%내외 증가

○ 민간소비는 유가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GNI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나 고용 회복세 둔화, 높은 가계부채 부담 등이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약간 높은 3% 내외의 증가를 보일 전망

□ 투자 : 설비투자는 증가세 둔화, 건설투자는 증가세 전환되나 낮은 증가

○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세 둔화, 세계경제 불안 재연 등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

○ 건설투자는 전년의 감소세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

□ 수출입 : 연간 수출증가율 7% 내외, 무역흑자 240억 달러 전망

○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물량 증가율 하락, 유가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 소멸로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7% 내외의 증가(통관기준)를 예상

○ 수입 역시 국내경기 둔화와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에 따른 수입단가 안정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연간 8%대 증가를 전망

○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12년 무역흑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24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

## <표 1>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

전년동기대비, %, 억달러

| | 2011년 | | | 2012년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
| 실질GDP | 3.8<br><1.1> | 3.6<br><0.8> | 3.7 | 3.4<br><0.9> | 3.9<br><1.0> | 3.7 |
| 민간소비 | 2.9 | 2.4 | 2.7 | 2.9 | 3.1 | 3.0 |
| 건설투자 | -9.0 | -1.7 | -5.2 | 3.2 | 1.2 | 2.1 |
| 설비투자 | 9.4 | 2.8 | 5.9 | 3.5 | 6.4 | 4.9 |
| 통관기준 수출(억달러) | 2,737 | 2,824 | 5,561 | 2,910 | 3,045 | 5,955 |
| (%) | (23.7) | (15.2) | (19.2) | (6.3) | (7.8) | (7.1) |
| 통관기준 수입(억달러) | 2,581 | 2,685 | 5,266 | 2,781 | 2,934 | 5,715 |
| (%) | (26.7) | (21.3) | (23.9) | (7.7) | (9.3) | (8.5) |
| 무역수지 | 156 | 139 | 295 | 129 | 111 | 240 |
| 경상수지 | 81 | 124 | 205 | 64 | 66 | 130 |

주 : <  >안은 전기대비 분기증가율의 반기 평균임.

## Ⅱ. 산업별 전망

### □ 제조업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

○ 고용불안, 가계소득 부진,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세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제조업 내수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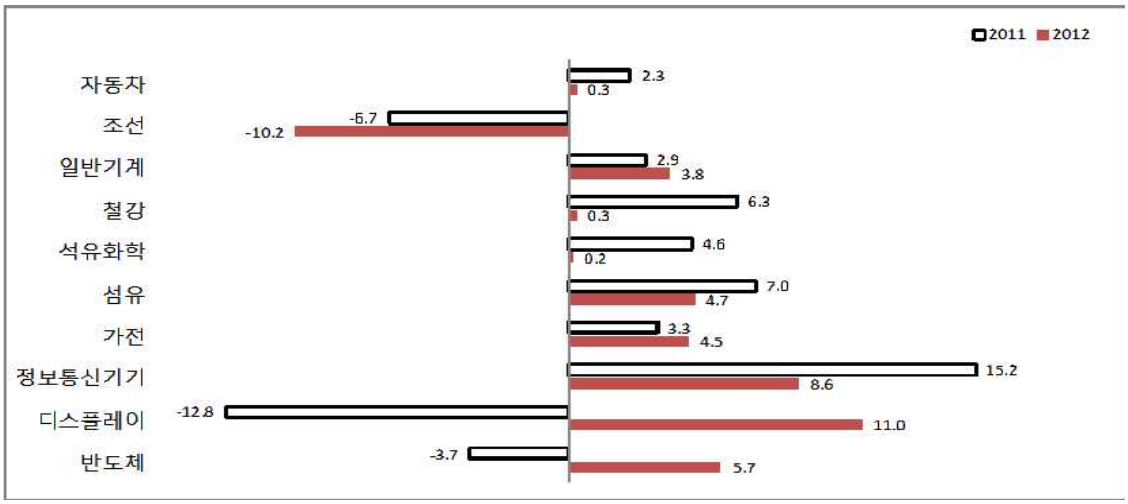
○ IT제품군은 정보통신기기의 호조 지속과 가전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며,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완만하나마 회복기조로 전환

○ 기계산업군의 경우 일반기계 내수는 양호하나, 자동차와 조선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

○ 소재산업군은 건설경기 부진,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, 구매력 둔화 등으로 0~5%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

**<그림 1> 2012년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**

단위 : %




주 : 자동차는 완성차, 조선은 건조량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.

□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조선 급락으로 인해 6.5% 증가에 그칠 전망

○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신흥시장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6.5% 증가에 그치는 수준. 다만, 급락세가 예상되는 조선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8.9% 시현

○ 2012년의 수출은 자동차, 일반기계, 철강, 석유화학 등 4개 산업이 10%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주도해나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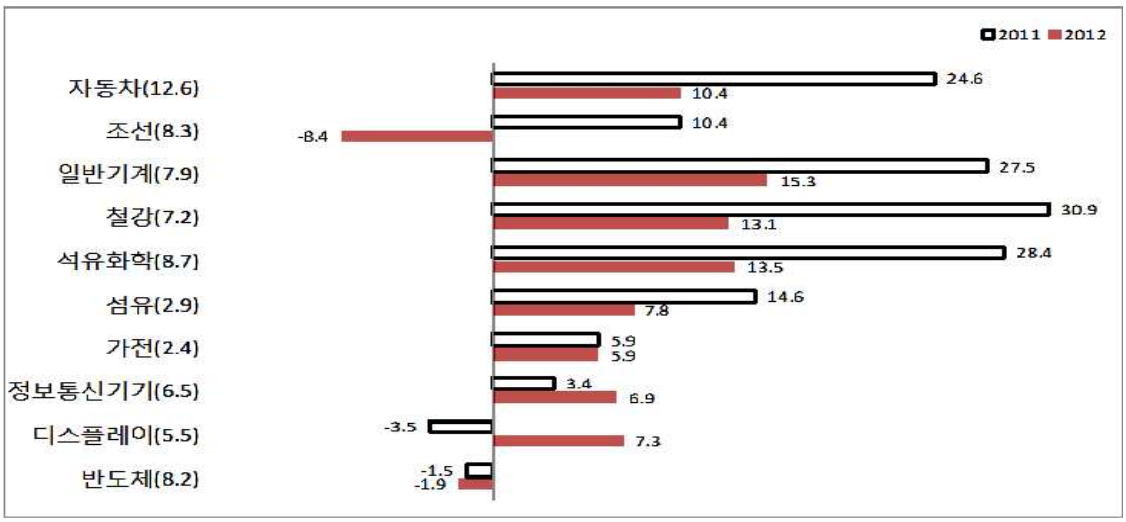
○ 소재산업군은 중국,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가 유지되고 국내 업체들의 수출 확대 노력에 힘입어 12% 증가하면서 순항기조를 유지

○ 기계산업군은 신흥국 수요 증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일반기계와 자동차 수출은 호조이나, 조선은 건조선박 인도 불투명하여 8% 이상 감소할 전망

○ IT산업군 수출은 런던 올림픽 특수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3.5% 증가하면서 2011년의 부진에서 회복될 전망

<그림 2> 2012년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

단위 : %




주 : 달러표시 가격 기준, ( )은 2012년 총수출 대비 점유율.

## □ 내수와 수출 둔화로 생산도 증가세 둔화

○ 국내생산은 내수 회복세 미약, 수출환경 악화,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세 둔화 예상. 다만, 가전, 정보통신기기, 디스플레이 등 IT산업군은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율 소폭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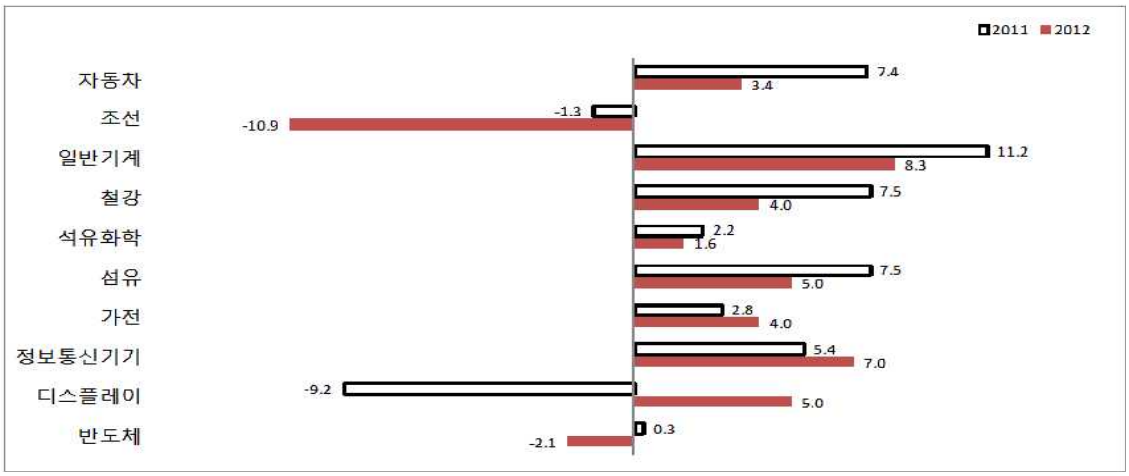
○ 기계산업군에서 일반기계와 자동차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의 증가세를 이어가지만, 조선은 10% 이상 감소할 전망

○ 소재산업군은 설비능력 확대에 대응한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 힘입어 1~5%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

○ IT산업군은 정보통신기기와 가전이 5~6% 대의 완만한 상승세, 디스플레이의 감소세 탈출이 예상되나,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는 전년의 제로성장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악화 예상

**<그림 3> 2012년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**

단위 : %




주 : 자동차는 완성차, 조선은 건조량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.

□ 10대 주력업종 수입은 내수 및 수출 둔화로 4%의 소폭 증가

○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해외생산제품의 역수입 및 저가제품 수입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3.8% 정도 소폭 증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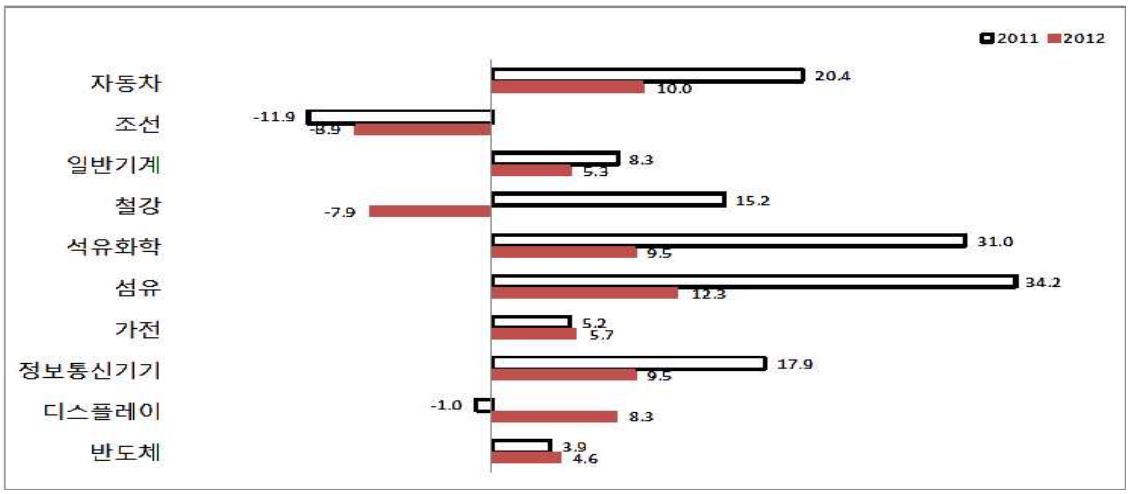
○ IT산업군은 국내 생산이 부족한 부품의 수입, IT신제품 수요 확대, 해외 생산 제품 및 부품의 역수입 증가, 외국 브랜드들의 국내시장 공략 강화 등으로 6.5% 증가할 전망

○ 기계산업군은 수입차 증가와 외국산 첨단장비 도입이 늘어나면서 5% 증가할 전망

○ 소재산업군은 업종별로 수입수요 편차가 큰 가운데, 수입규모가 큰 철강의 수입 감소로 1% 감소할 전망

<그림 4> 2012년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

단위 : %




주 : 달러표시 가격 기준.

## □ 2012년 산업전망 종합

○ 2012년의 10대 주력산업은 세계 시장 부진과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수출주도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자동차, 일반기계, 철강, 석유화학 등 4대 비IT 산업이 수출과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

○ 수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그 동안 개도권 시장 개척이 성공을 거둔 때문으로, 2012년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의 비중이 50%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

○ 유럽 재정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조선산업으로서 수출, 생산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예상

○ IT산업군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, 글로벌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세계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대응 여하에 따라 성장 진폭이 커질 가능성 상존

**<표 2> 2012년 산업전망 기상도**

| | 내수 | 생산 | 수출 | 수입 |
|---|---|---|---|---|
| 자동차 | ☁ | ☁ | ☼☼ | ☼ |
| 조선 | ☔☔ | ☔☔ | ☔ | ☔ |
| 일반기계 | ☁ | ☼ | ☼☼ | ☼ |
| 철강 | ☁ | ☁ | ☼☼ | ☔ |
| 석유화학 | ☁ | ☁ | ☼☼ | ☼ |
| 섬유 | ☁ | ☼ | ☼ | ☼☼ |
| 가전 | ☁ | ☁ | ☼ | ☼ |
| 정보통신기기 | ☼ | ☼ | ☼ | ☼ |
| 디스플레이 | ☼☼ | ☼ | ☼ | ☼ |
| 반도체 | ☼ | ☂ | ☂ | ☁ |

주 : 1) 전망 :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, -10% 이하 ☔☔, -5%～-10 ☔, -5～0% ☂, 0～5% ☁, 5～10% ☼, 10% 이상 ☼☼

2)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, 조선은 건조량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

3)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

# I. 거시경제 전망

## 1. 국내 경기상황 판단

### □ 2분기 이후 회복세 둔화 추이

○ 국내 실물경기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GDI 성장률 부진, 선진권 경기부진의 영향 등으로 2분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이

* GDP (전기비 %) ('11.1/4) 1.3 → (2/4) 0.9 → (3/4) 0.7
* GDP (전년동기비 %) ('11.1/4) 4.2 → (2/4) 3.4 → (3/4) 3.4

- 유가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소득(GDI 및 GNI)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크게 하회

* GDI (전년동기비 %) ('11.1/4) 1.9 → (2/4) 0.5 → (3/4) 0.6
* GNI (전년동기비 %) ('10.4/4) 3.0→ ('11.1/4) 1.8 → (2/4) 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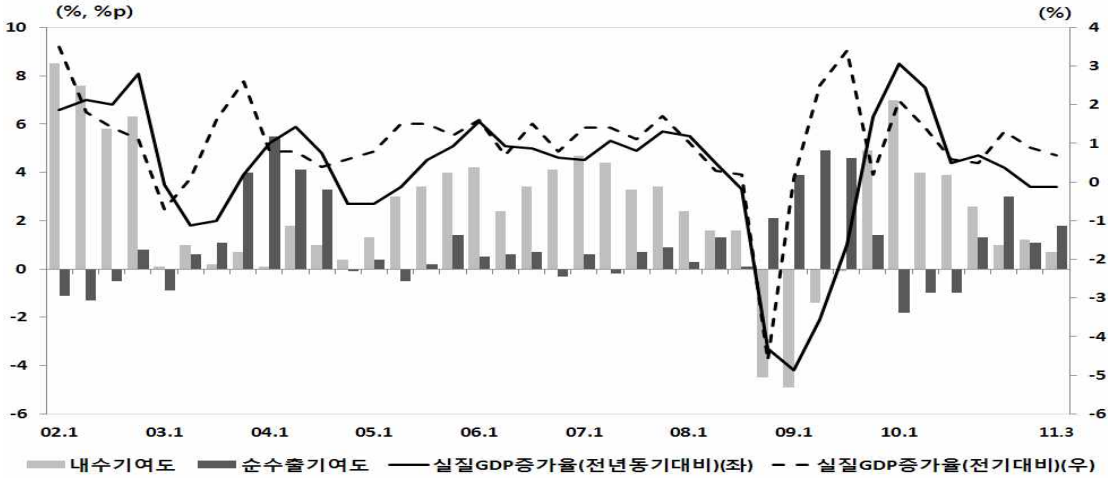
- 선진권 경기부진이 대선진권 수출부진으로 나타나면서 수출은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이

* 통관기준 수출증가율 (전년동기비 %)
  ('11.2/4) 18.7→ (7월) 21.7→ (8월) 25.9→ (9월) 18.8→ (10월) 9.3

- 내수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,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

* 민간소비 증가율(전년동기비 % : 이하 同)
  ('11.1/4) 2.8 → (2/4) 3.0 → (3/4) 2.2
* 설비투자 증가율(%)
  ('11.1/4) 11.7 → (2/4) 7.5 → (3/4) 1.4
* 건설투자 증가율(%)
  ('11.1/4) -11.9 → (2/4) -6.8 → (3/4) -4.2

<그림 Ⅰ-1> GDP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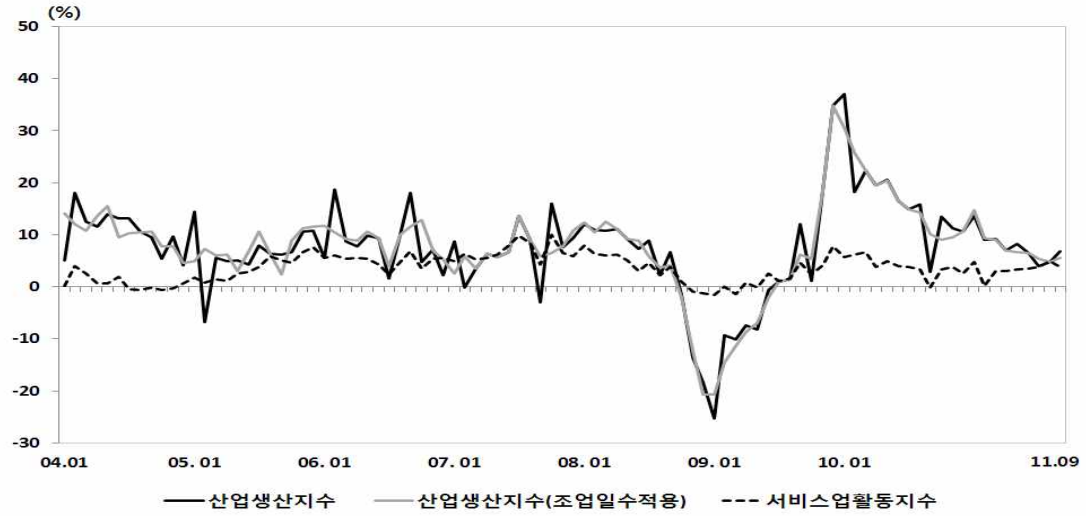



자료 : 한국은행.
주 :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.

○ 산업생산도 광공업과 서비스 모두 증가세 둔화 추이

* 전산업생산지수(전월비) : 0.6%(2Q)→-1.6%(7월)→-0.2%(8월)→-0.1%(9월)
* 광공업생산(전월비) : 0.0%(2Q)→-0.4%(7월)→-1.9%(8월)→1.1%(9월)
* 서비스활동(전월비) : 1.0%(2Q)→0.4%(7월)→0.5%(8월)→-1.6%(9월)

<그림 Ⅰ-2> 산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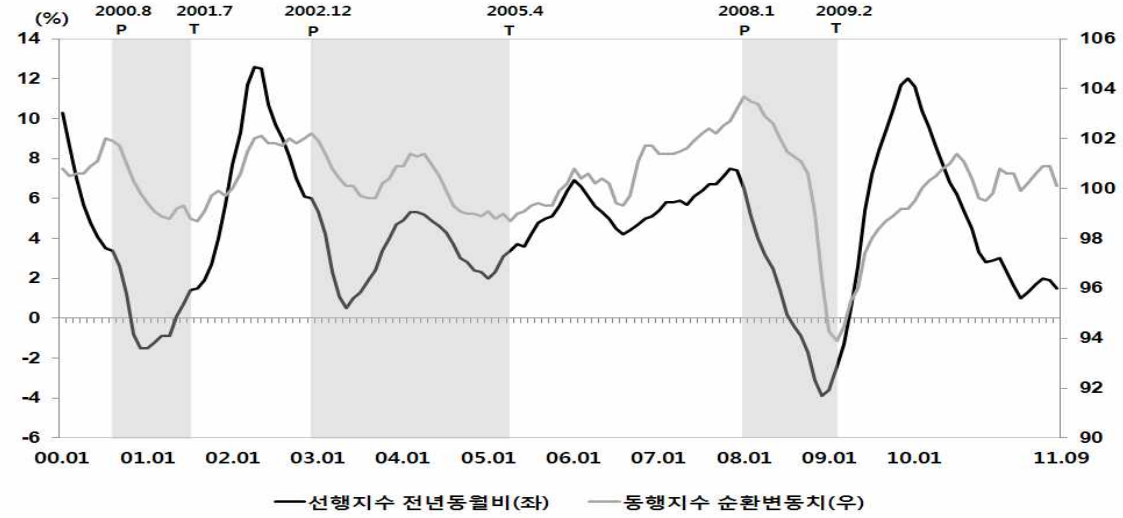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통계청.

○ 선행지표 추이나 제조업 재고/출하 순환도는 경기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

* 선행지수 전년동기비 증가율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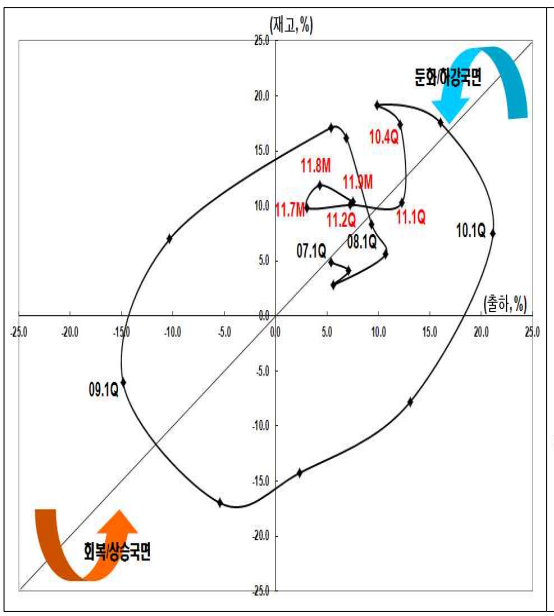
('11.6월) 1.7→ (7월) 2.0→ (8월) 1.9→ (9월) 1.5

<그림 Ⅰ-3> 경기종합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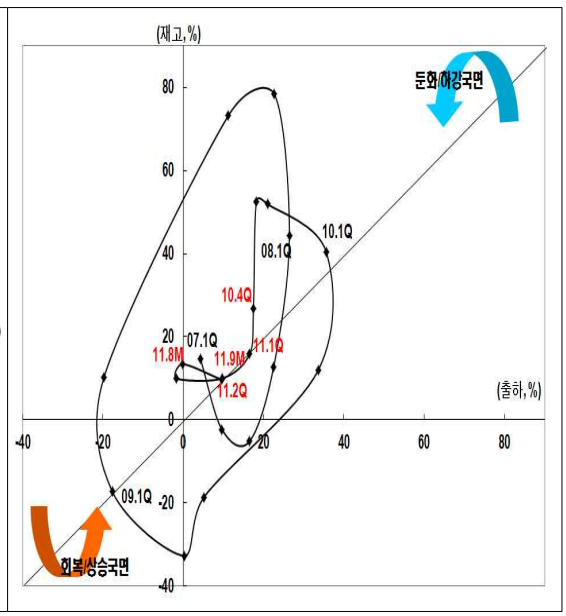



자료 : 통계청.

<그림 Ⅰ-4> 제조업 재고-출하순환




<그림 Ⅰ-5> 제조업ICT 재고-출하순환



## 2. 대외여건 전망

### □ 세계경제 : 선진권 부진으로 성장 둔화

○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초까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온 세계경제는 최근 선진권의 재정위기 등이 부각되면서 뚜렷이 둔화되는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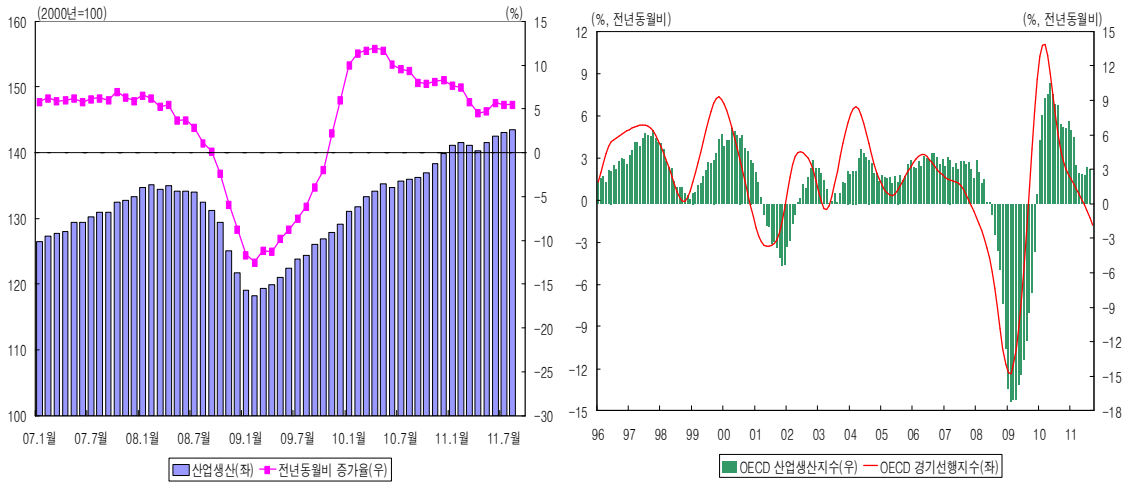
- 연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세와 인플레 우려 등으로 인해 긴축으로의 정책 선회가 확산되고, 3월 동일본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 여파로 일본경기가 급락하면서 세계 실물경기가 둔화

- 하반기 들어서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&P사의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조치(8월)에 이어 유로권 재정위기가 다시 주목 받으면서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

- OECD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6~9월중 4개월 연속 전년동기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세계경기가 둔화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

**<그림 Ⅰ-6> 세계경제 관련 지표 추이**

(a) 세계 산업생산지수 (b) OECD 경기지표




자료 : CPB; OECD.

○ 2012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재정불안에서 비롯된 부진이 지속되고 신흥권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체로 부진한 양상이 지속될 전망

- IMF는 선진권의 부진과 중국을 비롯한 개도권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금년과 2012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4.0%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

**<표 Ⅰ-1>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**

단위 : %, 전년동기비(전기비 연율)

| 구 분 | 2010 | | | | | 2011 | | | | 2012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1분기 | 2분기 | 3분기 | 4분기 | 연간 | 1분기 | 2분기 | 3분기 | 연간(f) | |
| 세 계 | | | | | 5.1 | | | | 4.0 | 4.0 |
| 선진권 | 2.5 | 3.3 | 3.3 | 3.0 | 3.1 | 2.4 | 1.6 | - | 1.6 | 1.9 |
| 미 국 | 2.2<br>(3.9) | 3.3<br>(3.8) | 3.5<br>(2.5) | 3.1<br>(2.3) | 3.0 | 2.2<br>(0.4) | 1.6<br>(1.3) | 1.6<br>(2.5) | 1.5 | 1.8 |
| 일 본 | 5.7 | 3.1 | 5.0 | 2.2 | 4.0 | -1.0 | -1.1 | 0.0 | -0.5 | 2.3 |
| 유 로 | 0.8 | 2.0 | 2.0 | 2.0 | 1.8 | 2.4 | 1.6 | 1.4 | 1.6 | 1.1 |
| 개도권 | | | | | 7.3 | | | | 6.4 | 6.1 |
| 중 국 | 11.9 | 10.3 | 9.6 | 9.8 | 10.4 | 9.7 | 9.5 | 9.1 | 9.5 | 9.0 |
| 세계교역 | | | | | 12.8 | | | | 7.5 | 5.8 |

자료 : IMF World Economic Outlook(2011.9월) 등

- 재정악화에 따라 선진권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고 유로권 재정위기는 상당기간 유로권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선진권은 내년까지 부진이 지속될 전망

  · 유로권 재정위기 문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2008,9년과 같은 세계경기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

- 중국은 선진권 부진의 영향, 물가불안 등으로 최근의 성장둔화추이가 이어지면서 9% 내외의 성장을 보일 전망

- 유가 안정에 힘입어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국들의 경기연착륙 또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

□ 유가 : 세계경기 부진으로 소폭 하락 전망

○ 국제 유가는 연초 중동·아프리카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석유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4월까지 급등한 이후 선진국들의 재정위기 문제와 세계 실물경기의 둔화 우려로 하락세

- 연초 중동 국가들(튀니지, 이집트, 리비아)의 정정 불안 여파로 유가는 지난 5월초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20달러 수준까지 급등, 이후 유로권 재정위기 문제가 부각되면서 하락세로 전환

- 연간 유가의 변동 범위는 지난해 배럴당 65~95달러에서 올 들어서는 유종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, 80~126달러로 크게 확대

<표 Ⅰ-2> 국제 유가 추이

단위 : 달러/배럴, 기간 평균, %

| 구 분 | 2009년 | 2010년 | | | 2011년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평균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평균 |
| WTI | 61.8<br>(-38.0) | 78.3<br>(52.3) | 80.6<br>(11.9) | 79.5<br>(28.5) | 98.4<br>(25.7) | 88.8<br>(10.2) | 94.6<br>(19.0) |
| Brent | 61.8<br>(-36.6) | 77.5<br>(49.6) | 82.0<br>(14.8) | 79.8<br>(29.3) | 111.4<br>(43.7) | 111.8<br>(36.4) | 111.5<br>(39.8) |
| Dubai | 61.7<br>(-34.1) | 77.0<br>(48.8) | 79.3<br>(10.7) | 78.2<br>(26.5) | 105.6<br>(37.1) | 106.1<br>(33.8) | 105.8<br>(35.4) |

자료 : 한국석유공사.
주 : 2011년 하반기와 연평균은 2011년 10월 말 현재까지의 기준.

○ 2012년 국제 유가는 올해 연초 중동 변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이 없는 한, 세계경기 부진을 반영하여 보합 내지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

- 단기적인 유가 변동의 주요 변수로는 유로권 재정위기 사태 전개와 미 달러화의 향방, 중동 정세 변화 등

- 본 전망에서는 돌발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2012년 유가를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약 106~107달러(전년비 약 0.5% 하락)로 예상

### <표 Ⅰ-3> 주요기관의 2012년 국제 유가 전망

단위 : 달러/배럴, %

| 유종 | WTI | | | Brent | | | Dubai | 3대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망기관 | EIA | PIRA | CERA[1)] | PIRA | CERA[1)] | CGES[2)] | CERA[1)] | IMF |
| 전망시점 | 10.12 | 9.23 | 10.14 | 9.23 | 10.14 | 9.19 | 10.14 | 9.20 |
| 2011년 | 92.36 | 92.55 | 91.52 | 112.30 | 109.44 | 114.70 | 104.33 | 103.20 |
| 2012년<br>(상승률) | 88.00<br>(-4.7) | 89.65<br>(-3.1) | 88.60<br>(-3.2) | 108.65<br>(-3.3) | 104.60<br>(-4.4) | 101.90<br>(-11.2) | 101.31<br>(-2.9) | 100.00<br>(-3.1) |

자료 : EIA; PIRA; CERA; CGES; IMF.

주 : 1) 시나리오별 전망치의 수정값 2) 기준유가 시나리오 전망

### <표 Ⅰ-4> 2012년 국제 원유가 전망 (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)

단위 : 달러/배럴, 기간 평균

| 구 분 | 2011년 | | | 2012년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
| Dubai유 | 105.6<br>(37.1) | 108.5<br>(36.9) | 107.0<br>(37.0) | 104.0<br>(-1.5) | 109.0<br>(2.7) | 106.5<br>(-0.5) |

주 : 1) 하반기와 연간은 2011년 10월 현재까지의 기준.

2) ( )는 각각 전기비 및 전년대비 기준.

## □ 환율 : 하락기조속 높은 변동성 예상

○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하락기조에서 8월초 유로권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인후 최근 다시 하락하는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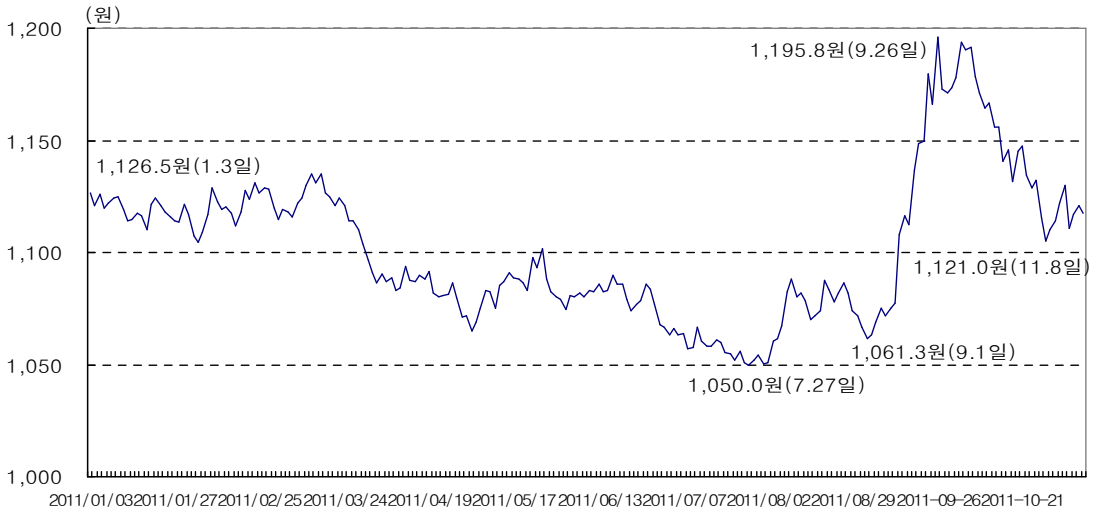
- 8월 이후의 원/달러 환율 급등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美달러화 등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가 더욱 강화되어 급등락의 변동성은 상존

  * 1,126.5원 (연초 1.3일) → 1,121.0원 (11.8일), 0.4% 하락

  * 1,050.0원 (연저점 7.27일) → 1,121.0원 (11.8일), 6.7% 상승

  * 1,195.8원 (연고점 9.26일) → 1,121.0원 (11.8일), 6.2% 하락

<그림 Ⅰ-7> 2011년 원/달러 환율 추이




○ 2012년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기조와 국내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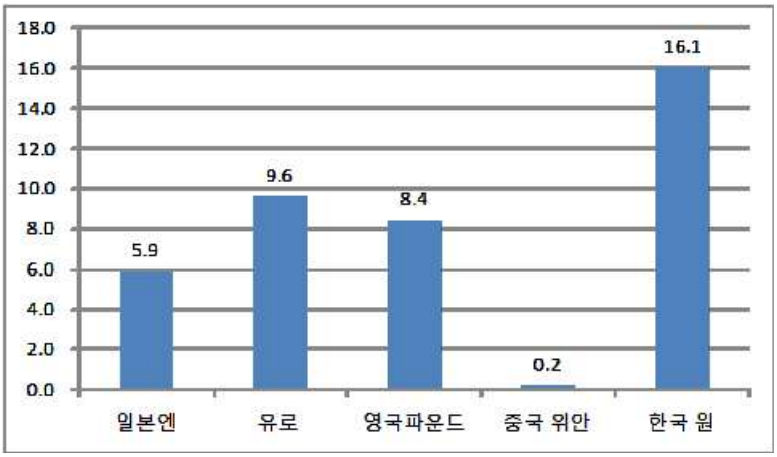
- 미국 달러화는 美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달러 신뢰도 하락, 초저금리 기조 유지, 美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약세 전망

- 국내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달러화 공급 증가 등으로 원/달러 환율의 하락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나 유로존 금융불안 등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

  · 대외충격에 취약하고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한국경제 및 원화의 특성상 원/달러 환율은 최근 세계경제 불안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시현

- 유로존 위기 전개 추이, 美회복둔화 장기화 여부, 국내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

<그림 Ⅰ-8> 금융위기 이후 원화와 주요통화의 변동성 비교




주 : 2008년 이후 월별 대달러 환율의 전월비 증감율의 분산

○ 2012년 원/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약 3.0% 하락한 1070원 내외로 예상

<표 Ⅰ-5> 원/달러 환율 전망치

단위 : 원

| 원/달러 환율 | 2010년 | | | 2011년 | | | 2012년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
| | 1154 | 1157 | 1156 | 1101 | 1102 | 1101 | 1082 | 1052 | 1067 |

○ 엔화는 강세 추이가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, 유로권 위기가 더욱 악화되지 않는 한 일본정부의 엔고 억제 노력 등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, 2012년 연평균 원/엔 환율은 전년비 약 0.2% 하락한 1375~80원 정도로 예상

## 3. 2012년 국내경제 전망

### (1) 경제성장

□ 2012년 3%대 중반의 성장 예상

○ 최근 세계경제의 둔화 추이와 부진 지속 전망을 반영하여 국내경제는 2011년에 3.7%, 2012년 3.7%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

- 세계경제 부진이 2012년 연중 지속되면서 국내경제도 추세성장률에 못미치는 다소 낮은 성장을 보일 전망

- 세계경제 부진을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며, 민간 내수는 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

  ·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유가안정에 힘입어 교역조건이 호전되면서 실질소득(GDI 및 GNI) 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, 내수증가율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아질 전망

○ 수출은 세계경기 부진을 반영하여 증가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

- 2012년 수출은 약 7%, 수입은 약 8% 증가하여 무역흑자는 24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
-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율 둔화와 더불어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소멸도 수출증가세 둔화에 기여

□ 유로권 재정위기를 비롯한 대외불안요인이 가장 큰 변수

○ 2012년 실물경제의 주요 변수는 대외적으로는 유로권 재정위기를 필두로 한 선진권 경기와 신흥권 파급 정도,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등

- 2012년 국내 경기의 주요 변수는 하방위험요인이 우세하며, 특히 유로권 재정위기의 전개 양상이 가장 중요한 변수

  · 유로권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전개과정에서 심각한 금융불안을 초래할 경우에는 세계경기가 급락하면서 국내경제 성장률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

- 아울러 유로권을 위시한 선진권 부진의 정도, 그와 연관된 중국 등 신흥권 경기에의 파급 정도 등 해외요인이 주요 변수

  · 중국의 경우 과잉투자, 자산버블이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도 주요 위험요인

-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, 건설경기 부진과 그 여파 등이 주요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## <표 Ⅰ-6>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

단위 : 전년동기대비, %, 억 달러

| | 2011년 | | | 2012년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
| 실질GDP | 3.8<br><1.1> | 3.6<br><0.8> | 3.7 | 3.4<br><0.9> | 3.9<br><1.0> | 3.7 |
| 민간소비 | 2.9 | 2.4 | 2.7 | 2.9 | 3.1 | 3.0 |
| 건설투자 | -9.0 | -1.7 | -5.2 | 3.2 | 1.2 | 2.1 |
| 설비투자 | 9.4 | 2.8 | 5.9 | 3.5 | 6.4 | 4.9 |
| 통관기준 수출(억달러) | 2,737 | 2,824 | 5,561 | 2,910 | 3,045 | 5,955 |
| (%) | (23.7) | (15.2) | (19.2) | (6.3) | (7.8) | (7.1) |
| 통관기준 수입(억달러) | 2,581 | 2,685 | 5,266 | 2,781 | 2,934 | 5,715 |
| (%) | (26.7) | (21.3) | (23.9) | (7.7) | (9.3) | (8.5) |
| 무역수지 | 156 | 139 | 295 | 129 | 111 | 240 |
| 경상수지 | 81 | 124 | 205 | 64 | 66 | 130 |

주 : < >안은 전기대비 분기증가율의 반기 평균임.

## (2) 부문별 전망

### □ 민간소비

○ 민간소비는 고용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GNI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최근 물가불안 등이 가세하면서 증가세는 완만

- 재화별로는 자동차 등 내구재소비가 전체 소비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비내구재나 서비스 소비 증가는 상대적으로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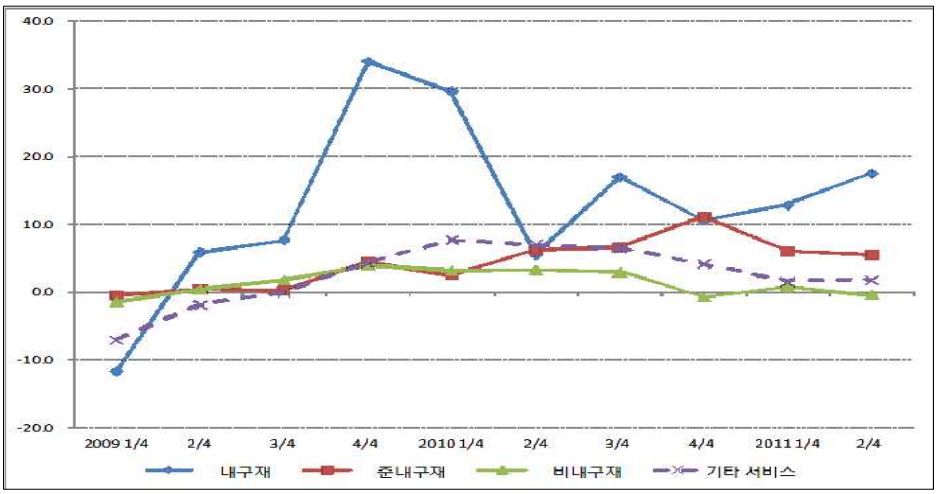
<표 Ⅰ-7> 민간소비 관련 지표 추이

| | 2010 | | | | | 2011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1/4 | 2/4 | 3/4 | 4/4 | 연간 | 1/4 | 2/4 | 3/4 |
| 민간소비 | 6.6 | 3.5 | 3.6 | 2.9 | 4.1 | 2.8 | 3.0 | 2.2 |
| (국민계정) | (0.5) | (0.7) | (1.4) | (0.3) | | (0.4) | (0.9) | (0.6) |
| 소매판매액 | 9.7 | 4.9 | 7.5 | 5.1 | 6.6 | 5.1 | 5.7 | 4.4 |
| 지수 | (-4.6) | (1.8) | (1.2) | (6.9) | | (-4.6) | (2.4) | (-0.1) |
| 실질 GNI | 9.6 | 5.6 | 4.5 | 3.0 | 5.5 | 1.8 | 0.6 | - |
| | (1.2) | (1.3) | (0.4) | (0.0) | | (-0.1) | (0.2) | - |

자료 : 한국은행.

<그림 Ⅰ-9> 재화별 소비 추이

전년동기비 증가율, 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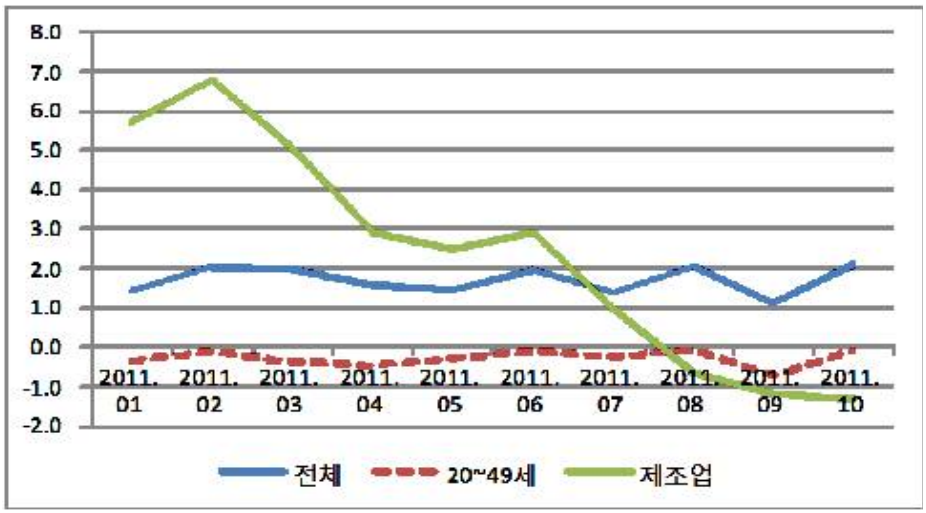
○ 고용은 취업자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개선 추이를 지속하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내용면에서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

- 취업자 증가율이 1%대 후반 ~ 2% 수준에 머물면서 총량 고용은 개선 추이를 지속하고 있으나, 하반기 들어 고용증가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중고년층에 편중되고 제조업 고용이나 핵심생산계층 고용은 다시 부진해지는 모습

- 전체 경기의 둔화 추이에 따라 2012년에는 고용회복세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

**<그림 Ⅰ-10> 고용 증가율 추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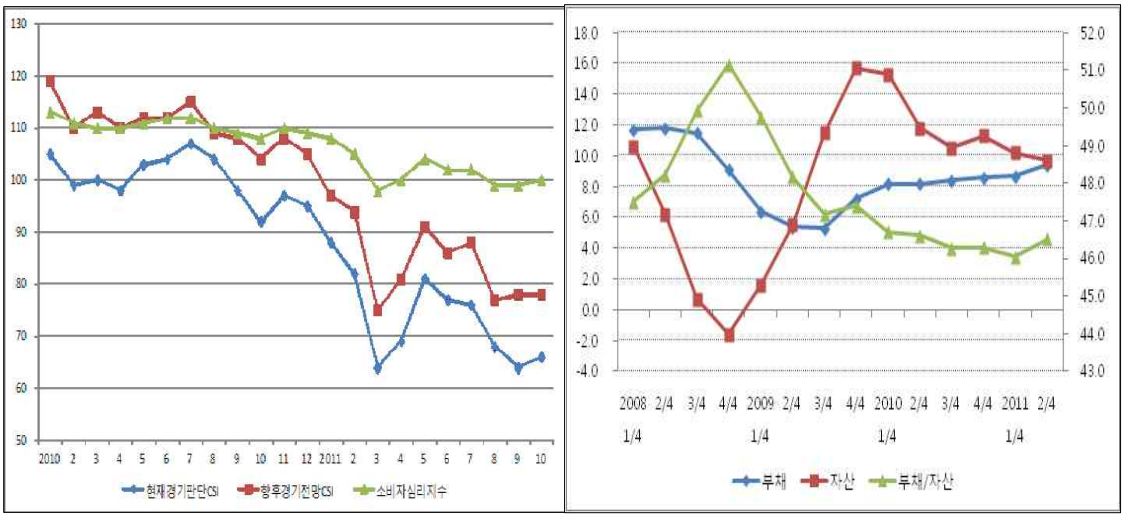
전년동기대비, %




자료 : 통계청.

○ 국내외 경기둔화와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하여 소비심리지표는 최근 악화되는 모습이고,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자산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가계부채/자산 비율은 다소 상승

<그림 Ⅰ-11> 소비심리지수 추이 <그림 Ⅰ-12> 가계부채 및 자산 추이(%)




자료 : 한국은행.
주 : 자산 및 부채증가율은 좌축, 부채/자산 비율은 우축.

○ 2012년 민간소비는 금년보다 다소 높은 3% 내외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

- 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GNI 증가율이 금년에 비해 다소 높아지면서 소비증가를 견인할 전망

- 반면 고용 회복세의 둔화, 세계경기 불확실성 지속, 가계부채 부담 등이 소비회복을 제약하여 소비 증가율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

## □ 설비투자

○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대기수요 해소 등으로 인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

* 설비투자 증가율(%) : 1/4분기 11.7 → 2/4분기 7.5 → 3/4분기 1.4

- 설비투자추계지수 증가율은 3/4분기에 전년동기비 마이너스(-3.5%)를 기록

- 형태별로는 기계류와 운수장비 모두 둔화세이며, 주체별로는 정

부 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져 1~2/4분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

<표 Ⅰ-8> 설비투자 추이

전년동기비, %

| | | 2010 | 2011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1/4 | 2/4 | 3/4 |
| 설비투자 | | 25.0 | 11.7<br>(-1.1) | 7.5<br>(3.9) | 1.4<br>(-0.4) |
| 주체별 | 민간 | 26.3 | 12.5<br>(-0.1) | 8.2<br>(3.2) | - |
| | 정부 | 0.4 | -14.0<br>(-28.8) | -12.4<br>(29.8) | - |
| 형태별 | 운수장비 | 6.7 | 3.2<br>(-1.2) | 2.0<br>(4.2) | - |
| | 기계류 | 30.8 | 13.9<br>(-1.1) | 9.0<br>(3.9) | - |
| 설비투자추계지수 | | 25.1 | 6.6<br>(-0.2) | 4.8<br>(3.0) | -3.5<br>(-0.9) |
| 형태별 | 기계류 | 30.5 | 6.8<br>(-1.8) | 7.0<br>(6.5) | -3.6<br>(-2.7) |
| | 운송장비 | 4.3 | 5.6<br>(7.6) | -5.7<br>(-12.5) | -3.2<br>(8.6) |
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.
주 : ( )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.

○ 설비투자 선행지표들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는 모습

-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국내기계수주 및 설비투자조정압력도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이

- 산업별로는 IT산업의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2010년 3/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등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불리

## <표 Ⅰ-9>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

전년동기비 %, 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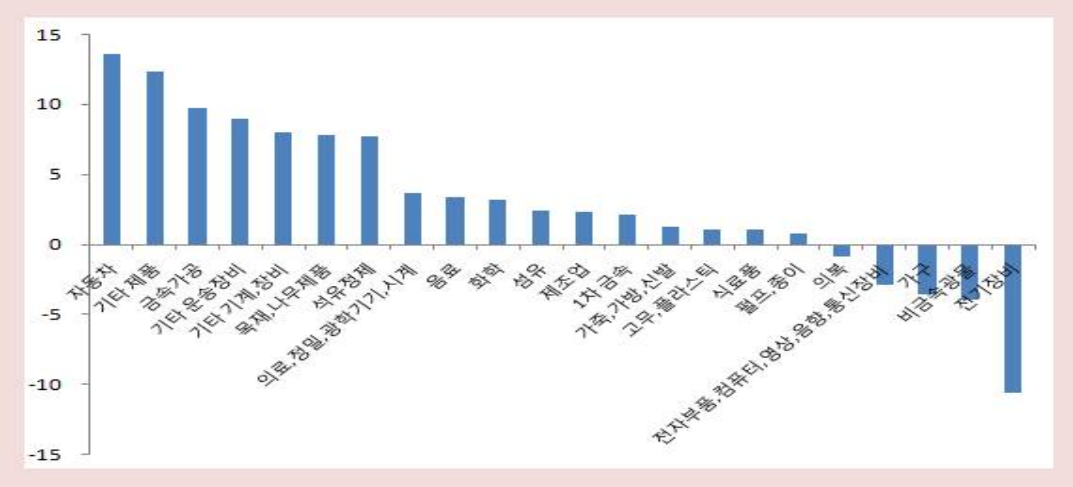
| | | 2010 | 2011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1/4 | 2/4 | 3/4 |
| 국내기계수주 (선박제외) | | 11.2 | 19.5 | 8.2 | 1.3 |
| 수요자별 | 공공 | -37.9 | -10.3 | 82.0 | 5.6 |
| | 민간 | 21.8 | 22.7 | 3.1 | 1.0 |
| 설비투자조정압력 | | 9.5 | 4.1 | 1.6 | 1.2 |

자료 : 통계청.

주 :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제조업 생산지수증가율-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.

## <그림 Ⅰ-13> 제조업 업종별 설비투자 조정압력 : 최근 3분기 평균

(%p)




자료 : 통계청.

주 :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생산지수증가율-생산능력 증가율.

○ 2012년에는 국내외 경기가 대체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설비투자는 낮은 증가에 머물 전망

- 2012년에도 세계 경제의 둔화 추이와 유로권 재정위기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에 불리한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

- 달러 대비 원화의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엔고가 지속되면서 자본재 수입비용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않을 전망

- 산업별로는 반도체를 제외한 IT산업의 투자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등 여타 부문의 투자도 완만한 증가에 그칠 전망

- 2012년 설비투자는 연간 5%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
## □ 건설투자

○ 2011년 건설투자는 2010년부터 시작된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추이

* 건설투자 증가율(%) : 1/4분기 -11.9 → 2/4분기 -6.8 → 3/4분기 -4.2

- 건설기성액도 2011년 들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

-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부문 건설투자가 특히 큰 폭 감소하였고, 형태별로는 건물 건설투자와 토목 건설투자 모두 극심한 부진 지속

**<표 Ⅰ-10> 건설투자 관련 지표 추이**

단위 : 전년동기비, %

| | | 2010 | 2011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1/4 | 2/4 | 3/4 |
| 건설투자 | | -1.4 | -11.9<br>(-6.7) | -6.8<br>(1.6) | -4.2<br>(2.2) |
| 주체별 | 민간 | 3.1 | -7.9<br>(-4.8) | -2.8<br>(5.6) | - |
| | 정부 | -11.1 | -23.3<br>(-11.7) | -16.9<br>(-9.5) | - |
| 형태별 | 건물 | -2.9 | -11.3<br>(-6.9) | -3.7<br>(3.3) | - |
| | 토목 | 0.5 | -12.7<br>(-6.5) | -10.4<br>(-0.5) | - |
| 건설기성액 | | -3.3 | -12.6<br>(-4.6) | -6.6<br>(3.5) | -8.6<br>(-6.1) |
| 공종별 | 건축 | -7.1 | -15.2<br>(-6.4) | -8.4<br>(1.5) | -8.1<br>(-3.5) |
| | 토목 | 2.2 | -9.2<br>(-2.2) | -4.3<br>(6.1) | -9.3<br>(-9.2) |
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.
주 : ( )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.

○ 다만 건설투자 선행지표는 하반기 들어 위축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

- 건설수주는 2011년 3/4분기 들어 2010년 1/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였고, 건설허가면적도 최근 3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율 시현

-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위축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고, 민간부문 건설수주는 3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율 시현

- 공종별로는 토목건설수주가 위축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축건설수주가 2011년 3/4분기에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

**<표 Ⅰ-11> 건설투자 선행지표 지표 추이**

단위 : 전년동기비, %

| | | 2010 | 2011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1/4 | 2/4 | 3/4 |
| 건설수주액 | | -18.7 | -12.8 | -3.3 | 0.9 |
| 발주자별 | 민간 | 2.8 | 18.2 | 0.5 | 6.8 |
| | 공공 | -43.7 | -49.1 | -11.9 | -6.1 |
| 공종별 | 건축 | -9.9 | -9.7 | -4.0 | 8.6 |
| | 토목 | -29.5 | -17.0 | -1.5 | -11.0 |
| 건설허가면적 | | 19.3 | 21.5 | 3.8 | 58.7 |

자료 : 통계청, 건설수주액은 경상 금액 기준. 국토해양부.

○ 최근 선행지표 추이 등을 고려할 때 2012년 건설투자는 감소세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회복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낮은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

- 그동안의 극심한 부진에 대한 반등과 기저효과로 2012년 건설투자는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

- 단, 가계부채 문제와 미분양 적체 문제, 건설사 자금난 문제와 구조조정 문제, 공공부문의 재정여력 소진에 따른 SOC 예산 축소

등이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

- 2012년 건설투자는 연간 2%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

**<표 Ⅰ-12> SOC 분야 투자 실적 및 계획**

| | '06 | '07 | '08 | '09 | '10 | '11 | '12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SOC예산 (조원) | 18.4 | 18.4 | 20.5 | 25.5 <0.8> | 25.1 <3.2> | 24.4 <3.1> | 22.6 <0.3> |
| 증가율(%) | - | 0.0 | 11.4 | 24.4 | -1.6 | -2.8 | -7.4 |

자료 : 기획재정부 2011-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.
주 : 증가율은 전년대비. < > 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.

## □ 수출입

○ 2010년에 28.3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던 수출은 2011년 들어와서도 10월까지 21.4% 증가한 4,62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, 올해 사상 처음으로 5,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

- 8월 이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, 유로권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선진권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증가율은 둔화 추세

**<그림 Ⅰ-14> 수출입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**

○ 선진권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수출단가의 상승,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반사이익, 신흥국의 성장세, 금융위기 이후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에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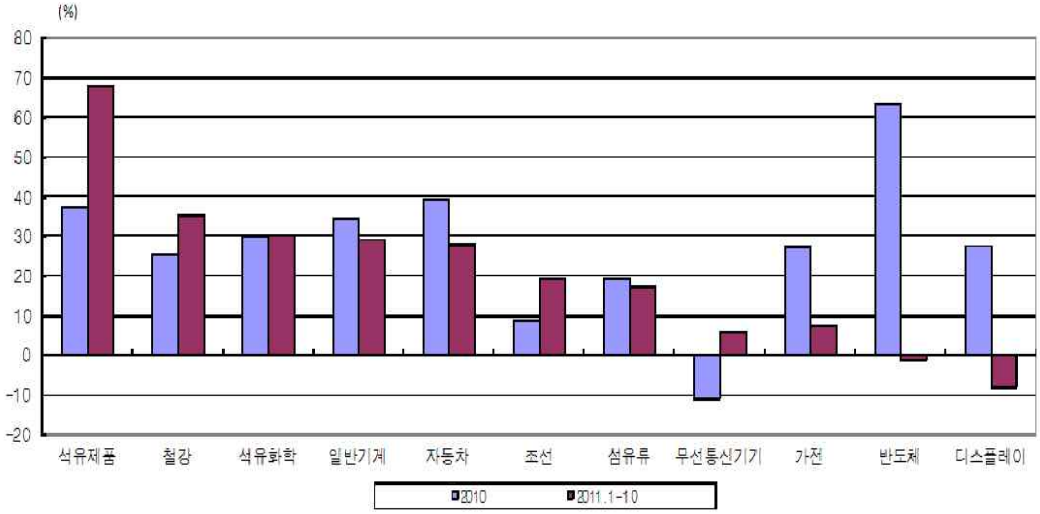
- 신흥국 성장세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와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석유제품, 철강, 석유화학 수출이 크게 증가

-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기업 생산차질로 대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, 자동차 및 부품 등의 분야에서 일본 수출부진의 반사이익

- 그동안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확대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자동차, 조선, 기계류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확대

○ 업종별로는 석유제품, 철강, 석유화학, 일반기계, 자동차, 조선, 섬유류 등 비IT산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, 반도체를 비롯한 IT산업의 수출은 부진

<그림 Ⅰ-15> 2011년 업종별 수출입 증가율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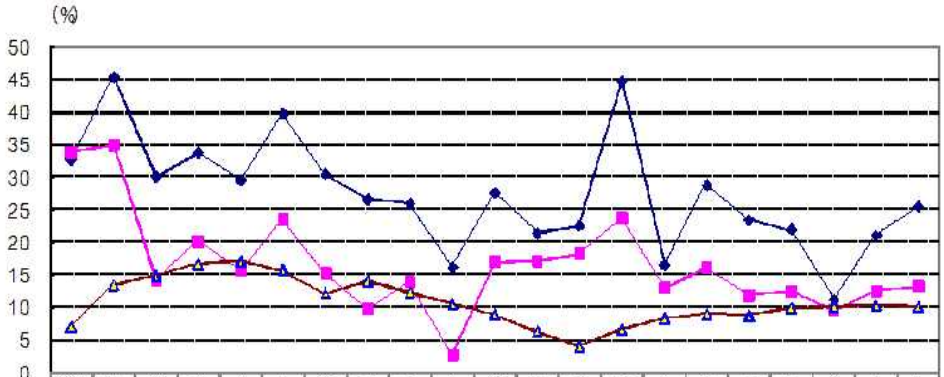



-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선진권 수요 위축과 D램 가격 및 패널가격의 하락으로 감소세 지속, 상반기 회복세를 보였던 무선통신기기는 해외 생산 확대와 스마트폰 특허분쟁 등으로 감소세 전환

○ 수출입의 변화를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, 2011년 1~8월 중 수출물량은 신흥국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13.9%나 증가하였으며, 수출단가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9.2% 상승

- 반면, 수입의 경우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(17.8%)하였으며, 가격상승으로 수입물량 증가율은 다소 위축(8.5%)

<그림 Ⅰ-16>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추이




| | 09.12 | 10.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 11.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출증가율 | 32.8 | 45.4 | 30.1 | 33.8 | 29.6 | 39.8 | 30.5 | 26.7 | 26.0 | 16.2 | 27.6 | 21.4 | 22.6 | 44.7 | 16.5 | 28.8 | 23.5 | 22.0 | 11.2 | 21.1 | 25.5 |
| 수출물량증가율 | 33.9 | 35.0 | 14.2 | 20.2 | 15.7 | 23.5 | 15.2 | 9.8 | 14.0 | 2.7 | 17.0 | 17.1 | 18.3 | 23.7 | 13.0 | 16.1 | 11.9 | 12.8 | 9.8 | 12.8 | 13.3 |
| 수출단가상승률 | 7.1 | 13.4 | 14.9 | 16.7 | 17.0 | 15.7 | 12.2 | 14.1 | 12.3 | 10.6 | 8.9 | 6.3 | 4.1 | 6.6 | 8.3 | 9.0 | 8.8 | 10.0 | 10.2 | 10.4 | 10.1 |

○ 2011년 수입은 원유, 가스 등 에너지 수입 확대로 원자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소비재도 자동차, 육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본재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낮은 증가세

<표 Ⅰ-13> 용도별 수입 추이

| | 수입증가율(%) | | 수입비중(%)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2010 | 2011(1~9) | 2010 | 2011(1~9) |
| 원자재 | 34.1 | 35.3 | 59.9 | 62.6 |
| 자본재 | 28.2 | 10.7 | 30.5 | 27.4 |
| 소비재 | 27.8 | 30.1 | 9.5 | 9.9 |
| 총수입 | 31.6 | 27.0 | 100.0 | 100.0 |

자료 : 한국무역협회.

○ 2011년 연간 수출증가율은 19.2%, 수입증가율은 23.9%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95억 달러로 전망

○ 2012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, 수출단가 안정, 대일 반사이익 소멸, 원화절상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7.1%로 크게 낮아질 전망

- 선진권 부진으로 대선진국 수출 뿐만 아니라 신흥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점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,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석유제품, 석유화학 등의 수출도 둔화될 전망

- 일본의 조업 정상화로 세계시장에서 반도체, 전자제품 등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, 2011년에 크게 늘어났던 대일수출 효과도 소멸될 것으로 기대

○ 2012년 수입도 국내 경기의 성장 둔화와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2011년보다 크게 둔화된 8% 대 증가에 그칠 전망

○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은 2011년보다 축소된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

**<표 Ⅰ-14> 2012년 수출입 전망**

전년동기비, %, 억 달러

| | 2011년 | | | 2012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
| 통관기준 수출 | 2,737<br>(23.7) | 2,824<br>(15.2) | 5,561<br>(19.2) | 2,910<br>(6.3) | 3,045<br>(7.8) | 5,955<br>(7.1) |
| 통관기준 수입 | 2,581<br>(26.7) | 2,685<br>(21.3) | 5,266<br>(23.9) | 2,781<br>(7.7) | 2,934<br>(9.3) | 5,715<br>(8.5) |
| 무역수지 | 156 | 139 | 295 | 129 | 111 | 240 |

주 : ( )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.

# Ⅱ. 주요산업 전망

## 1. 2011년 동향

### □ 내수는 실물 경기 둔화와 기저효과로 증가세 큰 폭 둔화

○ 10대 주력산업의 내수는 실물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과 기저효과로 2010년보다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된 가운데,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소재산업이 내수 성장을 주도

- 철강은 자동차와 플랜트 등 수요산업의 생산 호조와 재고수요 증가로 6.3% 증가, 석유화학은 할당관세와 수요산업 수출호조로 4.6%, 섬유는 수요산업 호조로 7.0% 증가

- 일반기계는 설비투자 둔화로 2.9% 증가, 자동차는 노후차량 대체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소비심리 위축되면서 2.3% 증가

- 정보통신기기는 스마트 모바일기기 수요확산에 힘입어 15.2%로 증가율이 높으나, 가전은 한정된 소득 하에서 스마트폰 구매 증가에 따른 가전기기 구매 여력 축소로 3.3%의 낮은 증가

- 반면, 디스플레이는 패널가격 급락과 수요제품 판매 부진으로 12.8%의 큰 폭 감소, 반도체도 PC 등 IT제품 수요 위축으로 3.7% 감소, 조선도 경기 냉각으로 6.7% 감소

### □ 신흥국 수요 증가로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14% 증가세

○ IT산업군[1] 수출이 부진한 양상 속에서 비IT산업군 업종들이 두 자

1) IT산업군은 가전, 정보통신기기, 디스플레이, 반도체이고, 비IT산업군은 자동차, 조선, 일반기계의 기계산업군, 철강, 석유화학, 섬유의 소재산업군.

리 수의 높은 수출 증가를 나타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14% 증가한 것으로 추정

- 비IT산업군의 수출 증가율이 23%로 높은데 비해 IT산업군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부진으로 0.1% 증가에 그쳐 극명하게 대조적인 실적 기록

- 철강이 신흥국 수요 증가와 국제가격 강세로 31%의 매우 높은 증가, 석유화학도 국제 유가·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28% 증가, 섬유는 대개도국 수출 확대로 15% 증가

- 일반기계는 신흥국의 수요 지속과 선진국의 수요 회복으로 28% 증가, 자동차는 고유가로 인한 해외 소형차 수요 확대와 일본업체의 대지진에 따른 생산 차질의 반사 이익으로 25% 증가, 수주잔량 감소로 건조량이 감소한 조선은 10%로 증가세 대폭 둔화

- IT산업군에서는 현지 생산용 가전부품 수출과 스마트폰 수출이 늘어난 가전과 정보통신기기가 각각 6%와 3% 증가

- 이에 비해 선진국 TV시장 부진에 따른 수요 침체의 디스플레이가 4% 감소, PC용 D램 수출이 감소한 반도체는 2% 감소

□ **수출 호조로 생산 증가세 지속**

○ 10대 주력산업의 생산은 조선과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업종이 대부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

-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한 일반기계가 11%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, 섬유와 자동차 및 철강도 내수와 수출 호조로 7%씩 증가

- 이밖에 정보통신기기는 스마트폰 내수와 수출 호조로 5% 증가, 가전은 재고 증가 및 기저효과로 3% 증가

- 그러나, 단가가 하락한 반도체는 정체, 수출 부진 및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기준 생산액이 줄어든 디스플레이는 9% 감소, 조선도 건조량 감소로 1% 감소

□ **10대 주력산업 수입은 소재 수입 증가로 13% 증가**

○ 비IT산업군 업종들의 수입이 15~30%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13% 증가한 것으로 추정

- 저가 임가공 의류 역수입이 크게 늘어난 섬유와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 이용하기 위한 재고 수요가 증가한 석유화학이 각각 34%, 31%로 매우 높은 증가율

- 수입업체의 차종 다양화와 가격 인하 전략으로 수입이 증가한 자동차와 수입단가가 상승한 철강은 각각 20%와 15%로 비교적 높은 증가

- IT산업군은 8%로 여타 산업군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은 편

## 2. 2012년 전망

□ **제조업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**

○ 고용불안, 가계소득 부진,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세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제조업 내수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전망

○ IT제품군은 정보통신기기의 호조 지속과 가전의 수요 회복이 예상

되며,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완만하나마 회복기조로 전환

- 정보통신기기는 4G 서비스 활성화와 신규 스마트기기 수요 증가로 9% 증가하고 가전은 런던 올림픽 및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에 따른 특수에 힘입어 5% 증가

- 2011년 10% 이상 감소했던 디스플레이는 기저효과로 인해 11% 증가하고 반도체는 시스템 및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 확대로 6% 증가

○ 기계산업군의 경우 일반기계 내수는 양호하나, 자동차와 조선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

- 일반기계는 신성장동력 생산장비 개발용 신규투자로 4% 증가하나, 자동차는 소비심리 위축과 신차효과 약화로 0.3% 증가로 정체,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으로 발주가 침체국면인 조선도 10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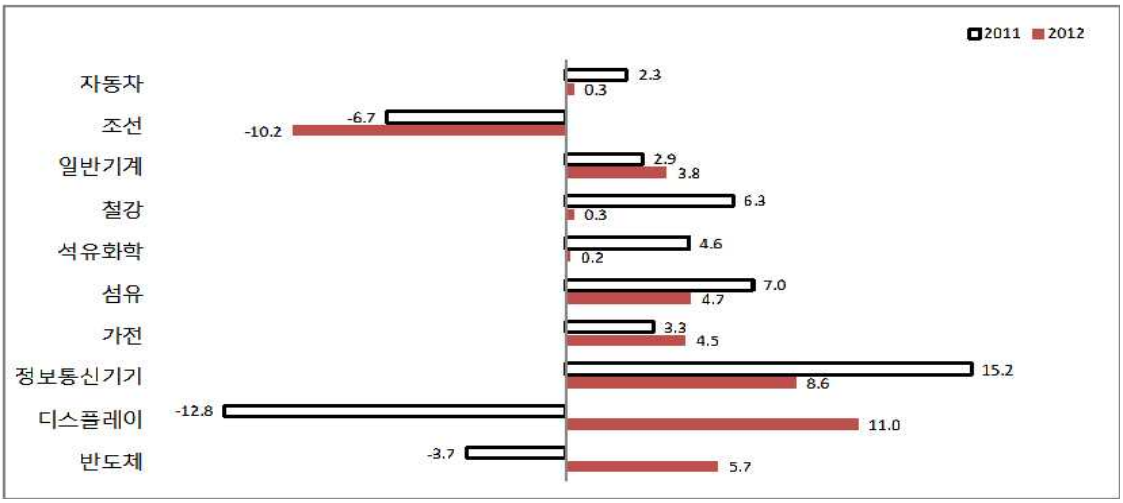
○ 소재산업군은 건설경기 부진,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, 구매력 둔화 등으로 0~5%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

- 섬유는 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소득이 다소 개선되면서 소비가 늘어나 5%로 소재산업군 중 높은 증가

- 그러나, 철강은 건설, 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수요 둔화로 0.3% 증가에 그치고, 석유화학도 자동차 등 수요산업 부진과 기저효과로 0.2% 증가에 그칠 전망

## <그림 Ⅱ-1> 2012년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

단위 :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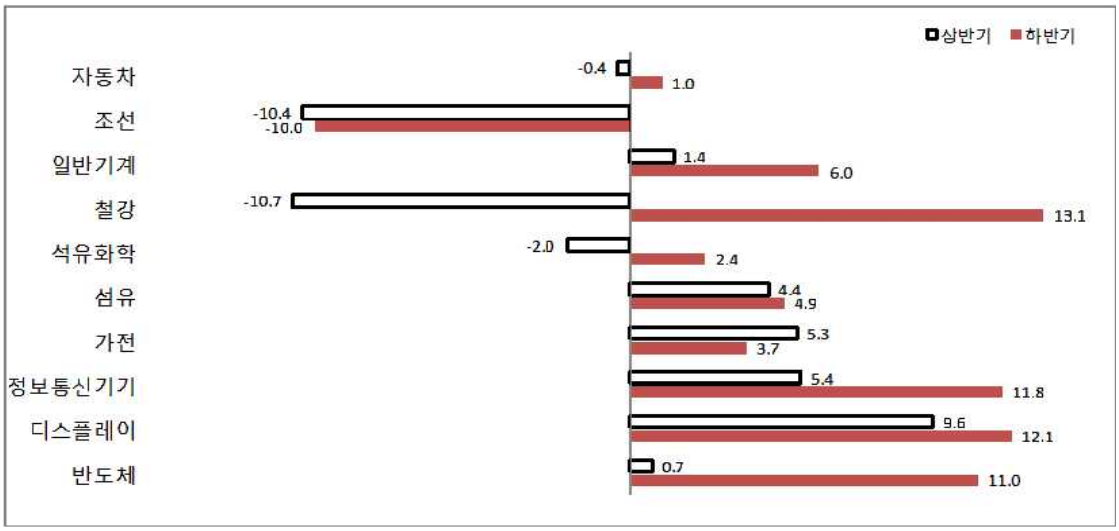



주 : 자동차는 완성차, 조선은 건조량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.

○ 올림픽 특수의 가전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내수는 하반기에 성장률이 더 높은 상저하고 형태를 보일 전망

## <그림 Ⅱ-2> 2012년 주요 산업별 상·하반기 내수증가율 전망

단위 : %




주 : 자동차는 완성차, 조선은 건조량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.

□ **10대 주력산업 수출은 6.5% 증가로 대폭 둔화**

○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신흥시장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6.5%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될 전망

- 10대 업종의 수출 증가율은 2009년과 10년의 특수상황을 제외하면, 2006년 13.9%, 2007년 14.9%, 2008년 9.2%, 2011년 15%로 대체로 10%대 이상 수준이었는바, 2012년의 증가율은 예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

○ 중국,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가 유지되고 국내 업체들의 수출 확대 노력에 힘입어 소재산업군이 12% 증가하면서 수출을 주도할 전망

- 석유화학은 신흥국의 상대적 고성장세에 따른 합성섬유 중간원료, 합성원료, 합성고무 등의 수요 확대로 14%의 높은 증가

- 철강은 중후판, 봉강, 철근 등의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적극적 수출 확대전략과 신흥국의 철강 수입수요 지속으로 13% 증가

- 섬유는 해외생산 확대로 폴리에스테르 섬유 공급 확대와 산업용 섬유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어 8% 증가

○ 기계산업군은 신흥국 수요 증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일반기계와 자동차 수출은 호조이나, 조선의 부진으로 5%의 낮은 증가

- 자동차는 EU FTA 및 미 FTA 수혜, 브랜드 인지도 제고, 신흥국 수요 증가 등으로 10% 증가할 전망

- 일반기계는 제1 수출시장인 중국의 높은 고정자산 투자 지속과 중동지역의 플랜트 기자재 수요, 굴삭기 등 건설중장비 수요 확대로 15% 증가할 전망

- 반면, 조선은 금융위기 이후 수주 공백기 영향 및 수주잔량 감소로 8% 감소할 전망

○ 런던 올림픽 특수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IT산업군 수출은 3.5% 증가하면서 2011년의 부진에서 회복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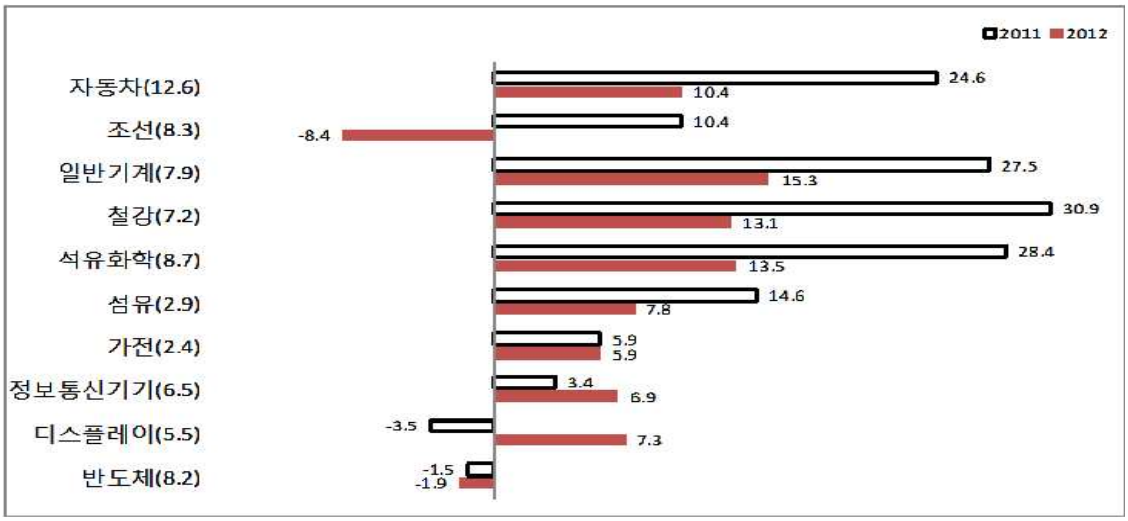
- 디스플레이는 올림픽 특수와 IT기기의 글로벌 수요 증가, 패널가격의 안정화 등으로 2011년의 감소에서 7% 증가로 전환

-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입지 강화 및 4G 이동통신시장이 확대되는 정보통신기기는 7% 증가, 국내 기업의 경쟁력 우위 지속 및 디지털 TV의 올림픽 특수가 기대되는 가전은 6% 증가

- 반면, 스마트폰 등의 시장 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PC기능의 스마트폰 대체로 D램 수출이 급감하는 반도체는 2% 감소

**<그림 Ⅱ-3> 2012년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**

단위 : %




주 : 달러표시 가격 기준, ( )은 2012년 총수출 대비 점유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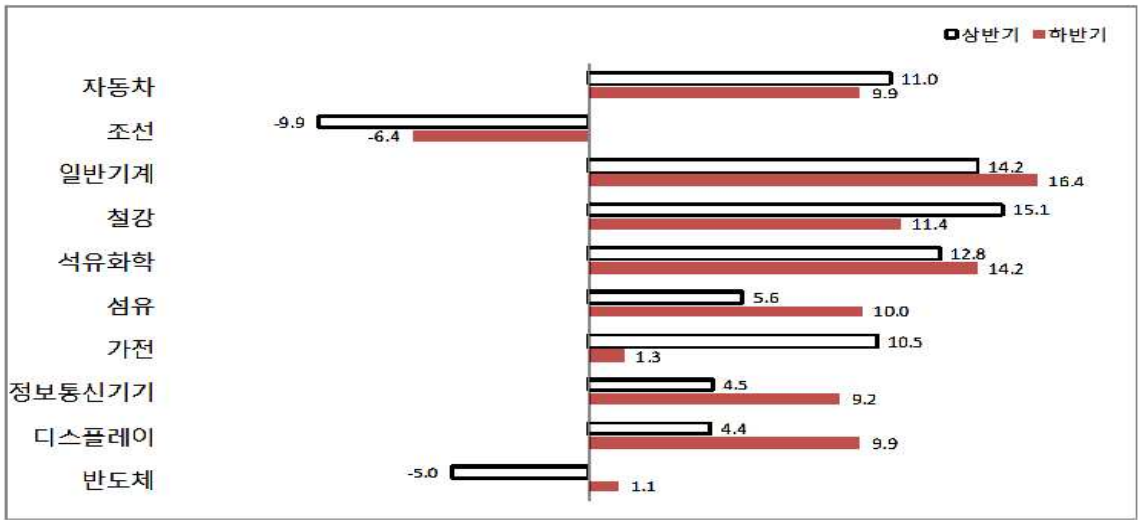
○ 10대 주력산업의 상·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기저효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업종별로 상이

- 자동차와 철강은 기저효과로, 가전은 올림픽 특수효과로 상반기의 수출이 하반기보다 높을 전망

- 일반기계와 섬유,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회복세 기대로, 정보통신기기, 디스플레이, 반도체는 기저효과로 하반기의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높을 전망

**<그림 Ⅱ-4> 2012년 산업별 상·하반기 수출증가율 전망**

단위 : %




○ 10대 주력 업종의 수출 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수출 대비 비중이 2011년 70.7%에서 2012년 70.3%로 다소 낮아질 전망

- 2012년 총수출 대비 비중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(12.6%), 석유화학(8.7%), 조선(8.3%), 반도체(8.2%), 일반기계(7.9%) 등으로 5개 산업의 총수출 대비 비중 합계는 45.7%에 이를 전망

## <표 Ⅱ-1> 주요 산업군별 2012년 수출 전망

단위 : 백만 달러, %

| | 2010 | 2011 | | | 2012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상반기 | 하반기 | | 상반기 | 하반기 | |
| IT산업 | 130,682<br>(25.6) | 64,334<br>(4.0) | 66,418<br>(-3.5) | 130,752<br>(0.1) | 65,276<br>(1.5) | 70,053<br>(5.5) | 135,329<br>(3.5) |
| 비IT산업 | 213,836<br>(27.3) | 132,803<br>(29.9) | 129,377<br>(16.0) | 262,180<br>(22.6) | 142,076<br>(7.0) | 141,198<br>(9.1) | 283,274<br>(8.0) |
| (기계산업군) | 135,347<br>(27.9) | 84,746<br>(30.3) | 77,848<br>(10.7) | 162,594<br>(20.1) | 88,044<br>(3.9) | 83,254<br>(6.9) | 171,298<br>(5.4) |
| (소재산업군) | 78,489<br>(26.3) | 48,057<br>(29.0) | 51,529<br>(24.9) | 99,586<br>(26.9) | 54,032<br>(12.4) | 57,944<br>(12.4) | 111,976<br>(12.4) |
| 10대<br>주력업종 | 344,518<br>(26.6) | 197,137<br>(20.1) | 195,795<br>(8.5) | 392,932<br>(14.1) | 207,352<br>(5.2) | 211,251<br>(7.9) | 418,603<br>(6.5) |

주 : 1) (  )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.

2) 수치는 통관기준임.

## <표 Ⅱ-2> 10대 주력 산업의 2012년 수출 호조·부진 품목 전망

| | 수출 호조 품목(부품) | 수출 부진 품목(부품) |
|---|---|---|
| 자동차 | · 소형승용차<br>· 친환경차용 배터리<br>· 변속기, 브레이크 관련 부품 등 | · SUV |
| 조선 | · 기 확보된 물량의 생산으로 시추선, FPSO 는 다소 증가(약 10% 내외) | · 수출규모 유지 품목인 컨테이너선, 유조선은 기저효과로 다소 감소<br>· 선박용 엔진의 대중 수출도 자국 생산증가에 따라 감소 전망<br>· 건조물량 소진과 중소조선 구조조정으로 벌크선 수출도 감소 |
| 일반기계 | · 굴삭기를 중심으로 한 건설중장비 | · NC선반,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류<br>· 프레스금형, 플라스틱금형 등 |
| 철강 | · 중후판, 봉강, 철근 등 수출여력 확대로 약 10%대의 수출증가 예상<br>· 동남아 진출 철강제품 가공센터로의 열연 10% 내외 수출 증가 기대 | · 전기강판, 선재 등 국내수요가 활발한 일부 품목의 해외수출 여력이 부족한 품목에서 5% 내외 수출감소 예상<br>· 아연도강판, 기타도금강판 등 수출경쟁 심화로 5% 내외 감소 예상 |
| 석유화학 | · 주력시장인 중국에서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기초유분(부타디엔, BTX), 중간원료(PX), 합섬원료(PTA/PET, EG, 카프로락탐) 및 합성고무(BR/SBR)는 호조 지속 전망(25~60%의 수출 증가 예상) | · 합성수지(PE/PVC, ABS/PS 등)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(수출 -5~8% 증가 예상) |
| 섬유 | · 폴레에스테르섬유, 편직물, 화섬사 및 직물, 의류 부자재 등은 해외 현지 생산 확대로 수출 확대<br>· 타이어코드, 부직포 등 산업용섬유 수출 확대 | · 선진권의 경기 부진으로 의류 수출 둔화<br>· 손수건, 실내용품, 모포 및 여행용 러그, 텐트 등은 가격 경쟁 심화로 수출 둔화 예상 |
| 가전 | · 디지털TV는 런던 올림픽 특수로 10%이상 증가<br>· 디지털카메라의 경쟁력 강화로 해외수요 증가<br>· LED조명기기 수요 증가 | · 양문형 냉장고, 드럼 세탁기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은 유럽과 브라질 등에서의 현지생산 확대로 5% 미만 증가 |
| 정보통신기기 | · 스마트폰은 해외생산 확대의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성장세 지속 전망<br>· 태블릿·노트북은 신제품 수요 증가 지속으로 증가세 전망<br>· 프린터, 모니터도 소폭 증가 예상<br>· 보조기억장치(SSD)는 HDD시장 축소의 영향 등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 예상 | · 피처폰은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감소<br>· 유선통신기기는 성장 둔화 또는 감소<br>· 데스크톱PC는 성장세 둔화<br>· 컴퓨터부품은 해외생산 확립으로 감소, 특히 하드디스크는 크게 감소할 전망 |
| 디스플레이 | · AMOLED 패널은 세계시장점유율 98%로 독점화되면서 50% 내외 증가 기대<br>· 올림픽 특수로 대형LCD 패널의 수출도 회복<br>· IPS 패널 선호도 증가, 스마트기기 수요 확대 등으로 중소형 LCD 패널 수출도 10%이상 증가 | · PDP는 수요한계로 수출 정체 또는 5% 미만 증가 |
| 반도체 | ·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기기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요확대로 10%미만 증가 예상<br>· 프리미엄 D램(서버용, 모바일용, 그래픽용 D램 등)은 스마트폰 호조로 5%이상 증가 예상 | · 메모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용D램은 PC시장의 급감으로 10% 이상 감소 예상<br>· 낸드플래시도 스마트폰에 의한 컴팩트 카메라, 게임기 등의 위축으로 5%이상 감소 예상 |

□ **내수와 수출 둔화로 생산도 증가세 둔화**

○ 내수 회복세 미약, 수출환경 악화,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기반 약화 등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둔화될 전망

○ 기계산업군은 일반기계와 자동차 생산은 증가하나 조선은 감소할 전망

- 일반기계는 해외 수요 증가로 8%로 비교적 높은 증가, 내수 정체를 수출이 보전하는 자동차는 3% 증가

- 조선은 수주량이 건조량 규모에 못미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11% 감소할 전망

○ 소재산업군은 설비능력 확대, 상대적으로 호조세인 수출에 힘입어 1~5%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

- 철강은 신증설 설비가 증가하고 제철원료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면서 4% 증가, 섬유는 수출 증가와 원자재가 하향 안정세로 5% 증가

- 석유화학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1%대의 낮은 증가

○ IT산업군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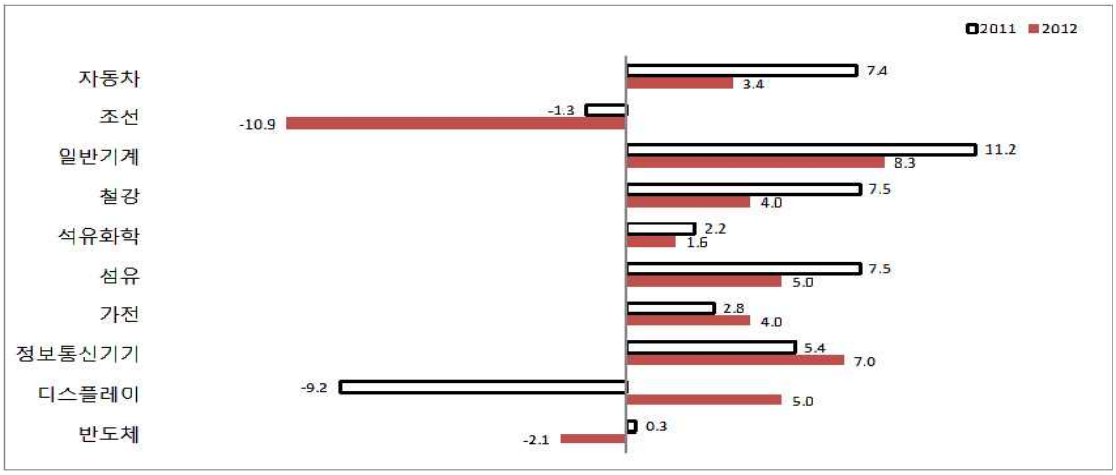
- 정보통신기기는 통신 인프라 증설 및 고도화 투자와 수출 확대로 7% 증가

- 디스플레이는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AMOLED 경쟁력 격차 확대로 5%의 높은 증가, 가전은 올림픽 특수로 디지털영상기기의 내수와 수출 증가에 따라 4% 증가

- 그러나, 후발업체의 기술추격이 국내 업체를 압박하는 가운데, 노트북의 수요 감소로 반도체는 2% 감소

<그림 Ⅱ-5> 2012년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

단위 :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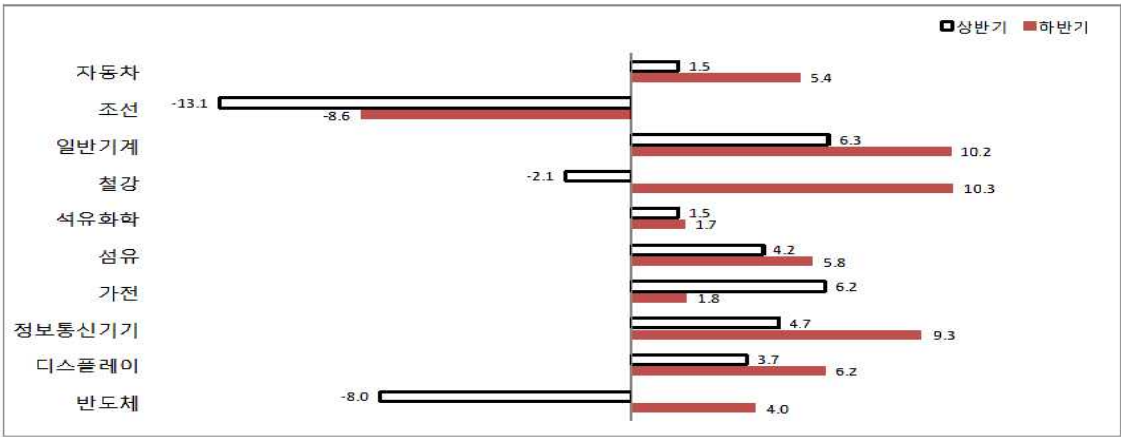



주 : 자동차는 완성차, 조선은 건조량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.

○ 가전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하반기 증가율이 상반기 증가율보다 더 높을 전망

<그림 Ⅱ-6> 2012년 산업별 상·하반기 생산증가율 전망

단위 : %



□ **10대 주력업종 수입은 내수 및 수출 둔화로 4%의 소폭 증가**

○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해외생산제품의 역수입 및 저가제품 수입 등으로 3.8% 증가하며 IT산업군 수입 증가율이 높을 전망

○ IT산업군은 국내 생산이 부족한 부품의 수입, IT신제품 수요 확대, 해외 생산 제품 및 부품의 역수입 증가, 외국 브랜드들의 국내시장 공략 강화 등으로 6.5% 증가할 전망

- 정보통신기기는 신규 외산제품 출시 확대와 경쟁국 기업의 저가 전략 강화로 10% 증가

- 디스플레이는 IT용 소형 패널 공급능력 부족분과 수출용 수입수요가 늘어나면서 8% 증가할 전망

- 가전은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제품 역수입 및 저가제품 수입 증가로 6% 증가, 반도체는 국내 미생산 시스템반도체 및 전력반도체 수요 증가로 5% 증가

○ 수입차 증가와 외국산 첨단장비 도입이 늘어나는 기계산업군은 5% 증가할 전망

- 자동차는 EU FTA 및 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와 신규 브랜드 진입으로 완성차와 부품 수입이 늘어나 10% 증가할 전망

- 일반기계는 반도체장비,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첨단 장비수입으로 5% 증가할 전망

- 반면, 조선은 국내 건조량의 감소로 중국 현지공장에서 가공한 블록의 반입 규모가 줄어들면서 9% 감소할 전망

○ 소재산업군은 업종별로 수입수요 편차가 큰 가운데, 수입규모가 큰 철강의 수입 감소로 1% 감소할 전망

-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특화제품 수입 증가, 전방산업의 수요 지속 등으로 10%의 높은 증가

- 섬유는 채산성 개선을 위한 저가 섬유소재와 중저가 의류 수입 확대, 해외 생산품의 역수입 증가 등으로 12%의 높은 증가

- 반면, 철강은 열연과 후판제품의 국내공급이 늘어나면서 동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8% 감소할 전망

**<표 Ⅱ-3> 주요 산업군별 2012년 수입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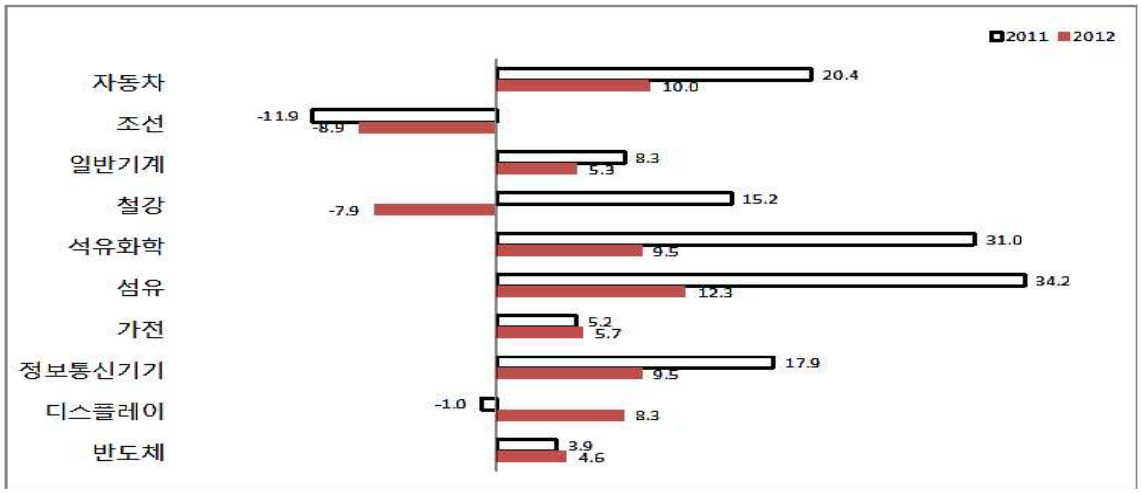
단위 : 백만 달러, %

| | 2010 | 2011 | | | 2012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상반기 | 하반기 | | 상반기 | 하반기 | |
| IT제조업 | 55,754<br>(19.8) | 30,071<br>(15.6) | 29,960<br>(0.7) | 60,031<br>(7.7) | 31,555<br>(4.9) | 32,377<br>(8.1) | 63,932<br>(6.5) |
| 비IT제조업 | 93,114<br>(27.0) | 53,675<br>(19.9) | 54,869<br>(13.5) | 108,544<br>(16.6) | 54,083<br>(0.8) | 57,017<br>(3.9) | 111,100<br>(2.4) |
| (기계산업군) | 39,049<br>(20.5) | 20,790<br>(12.6) | 21,487<br>(4.4) | 42,277<br>(8.3) | 21,640<br>(4.1) | 22,706<br>(5.7) | 44,346<br>(4.9) |
| (소재산업군) | 54.065<br>(32.1) | 32.885<br>(24.9) | 33.382<br>(20.3) | 66.267<br>(22.6) | 32.443<br>(-1.3) | 34.311<br>(2.8) | 66.754<br>(0.7) |
| 10대<br>주력업종 | 148,868<br>(24.2) | 83,746<br>(18.3) | 84,829<br>(8.6) | 168,575<br>(13.2) | 85,638<br>(2.3) | 89,394<br>(5.4) | 175,032<br>(3.8) |

주 : 1) ( )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.
2) 수치는 통관기준임.

## <그림 Ⅱ-7> 2012년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

단위 :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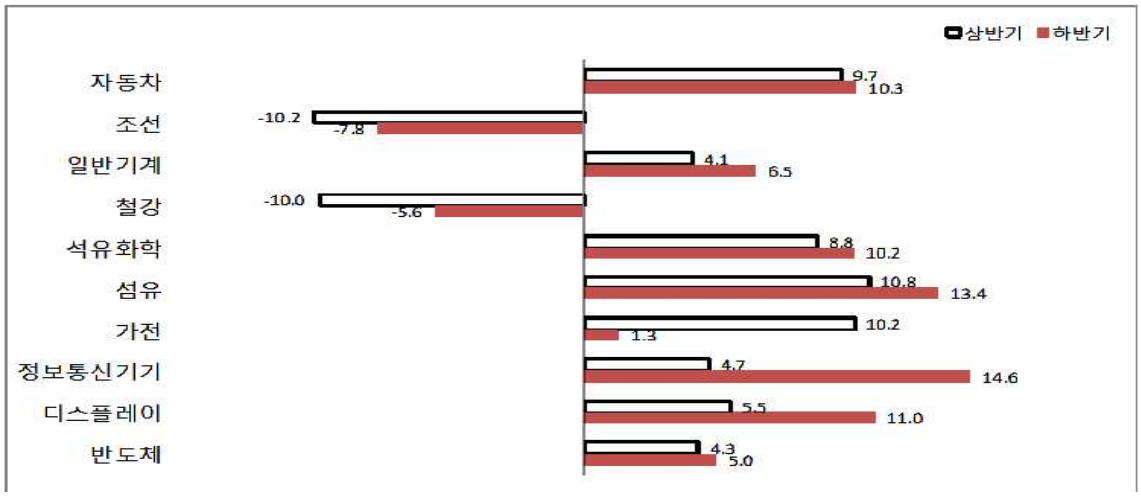



주 : 달러표시 가격 기준.

○ 가전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하반기의 수입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높고, 수입 감소 산업의 경우 조선과 철강은 상반기의 수입 감소율이 더 클 것으로 전망

## <그림 Ⅱ-8> 2011년 업종별 상·하반기 수입증가율 전망

단위 : %




주 : 달러표시 가격 기준.

<표 Ⅱ-4> 2012년 산업전망 기상도

| | 내수 | 생산 | 수출 | 수입 |
|---|---|---|---|---|
| 자동차 | ☁ | ☁ | ☼☼ | ☼ |
| 조선 | ☂☂ | ☂☂ | ☂ | ☂ |
| 일반기계 | ☁ | ☼ | ☼☼ | ☼ |
| 철강 | ☁ | ☁ | ☼☼ | ☂ |
| 석유화학 | ☁ | ☁ | ☼☼ | ☼ |
| 섬유 | ☁ | ☼ | ☼ | ☼☼ |
| 가전 | ☁ | ☁ | ☼ | ☼ |
| 정보통신기기 | ☼ | ☼ | ☼ | ☼ |
| 디스플레이 | ☼☼ | ☼ | ☼ | ☼ |
| 반도체 | ☼ | ☔ | ☔ | ☁ |

주 : 1) 전망 :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, -10% 이하☂☂, -5%～-10 ☂, -5～0% ☔, 0～5% ☁, 5～10% ☼, 10% 이상 ☼☼

2)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, 조선은 건조량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

3)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

## 3. 정책적 시사점

### □ 수출 인프라 지원 및 한-미FTA 적극 활용으로 수출 기회 확대

○ 중소수출기업의 FTA 관련 애로 지원

- 자동차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무료 원산지 증명 지원사업, 관세사 고용비용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

○ 신흥국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 지원과 문화 콘텐츠 진출 지원

- 신흥시장 방송국에 다양한 3D형식 콘텐츠 양산을 지원하여 한국의 3DTV와 3D콘텐츠 진출 통로 모색

○ 미국 수입 관세율 높은 품목의 대미 수출확대 노력

-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관세율이 높은 섬유, 일반기계 등에서 가격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 필요

□ **신흥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진출 확대**

○ 중국 내수시장 진입 확대

- 일반기계 : 중국 서부지역 개발에 필요한 건설 중장비 시장과 도시화를 통한 동서균형발전 정책을 수요 창출 기회로 활용

- 디스플레이 : 중국의 LCD 패널 육성정책을 수출기회로 활용하여 중국의 LCD 생산라인 신설·증설에 필요한 관련장비 및 부품 수출 확대

○ 신흥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 강화

- 내수 시장의 소비자 대상을 중국 등 신흥국 관광객까지 확대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가전업계와 여행사, 관광공사와의 연계를 통해 가전제품 쇼핑을 주제로 한 여행상품 개발 등

□ **내수 진작 및 경기부양 정책 필요**

○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 캠페인과 우대 세제 지원으로 친환경차 시장 조기 창출 필요

- 자동차 : 2011년은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출시, 2012년은 전기자동차 출시되므로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

○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달성을 위한 중저가 디지털TV보급 확대 및 저소득층의 디지털TV 구입 지원

○ 상저하고 형태의 경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에 재정투자 확대 등의 경기부양 정책 추진 필요

□ **차세대 산업에 대한 선제적 R&D 투자로 경쟁력 확보**

○ 차세대 유망 신산업의 선제적 투자로 시장 창출 주도

- 정보통신기기 : 차세대 이동통신망 및 단말, 차세대 SW플랫폼, 핵심 SW 등

- 디스플레이 : AM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

- 반도체 : 전력용 반도체

- 석유화학 : IT기기용 화학소재, 태양광 소재, 바이오 소재 등 고기능·고부가가치 스페셜티 핵심소재

- 조선 : 그린쉽

○ 생태계 조성으로 융합 환경 대응역량 강화

- 반도체 : SW-시스템반도체 업계의 융합기술 공동개발, 고급 설계 인재 양성 시스템 공동 구축, 컨소시엄을 통한 SSD(Solid State Drive) 표준화 제정과 기술개발로 낸드 플래시 활성화

- 정보통신기기 : 핵심 SW 및 융합기술 분야 등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, 대-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협력

- 철강 :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대-중소기업 연계 프로젝트, 국내외 철강산업 세부DB 구축

<표 Ⅱ-5 > 10대 주력산업의 전망 시사점

| 업종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자동차 | -친환경 자동차 판매확대 및 조기정착 지원<br>-무료 원산지 증명 지원사업 등으로 중소수출기업 지원 |
| 조선 | -중견 중소조선의 사업영역 다각화 추진<br>-그린쉽에 대한 R&D 및 투자 강화 |
| 일반기계 | -중장비 수요 지속의 대중국 진출 확대<br>-아시아권 중심으로 수출 확대 |
| 철강 | -해외마케팅 강화로 안정적인 수출시장 유지<br>-고성장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강화 |
| 석유화학 | -고부가가치 핵심소재 시장 진출 확대<br>-국산 신소재 신뢰성 제고 위한 인프라 구축 |
| 섬유 | -온실가스· 에너지 관리업체 지원 확대<br>-고부가가치·차별화 제품 생산체제 구축 |
| 가전 | -내수시장 외연 확대를 위한 신흥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 강화<br>-신흥국의 스마트인프라 구축 지원과 문화 콘텐츠 진출 지원 |
| 정보통신 기기 | -차세대 이동통신망·단말의 선제적 개발<br>-차세대 SW플랫폼 확보와 핵심SW 역량 강화 투자확대 |
| 디스플레이 | -차세대 디바이스 R&D 투자 지원<br>-중국의 LCD패널 육성전략을 핵심부품·장비 수출기회로 활용 |
| 반도체 | -SW-시스템반도체 업계의 융합기술 공동개발 추진<br>-전력용 반도체의 집중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 달성 |

## 4. 주요 산업별 2012년 전망 요약[2)]

## <자동차>

○ 내수는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인기모델의 신차효과가 약화되나,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전년대비 0.3% 증가한 161만대를 기록할 전망

2) 주요 업종별 세부 내용문의와 보다 자세한 업종별 전망 자료를 얻고자 하실 경우에는 산업연구원의 업종별 전망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람. 자동차-김경유 연구위원/3299-3125, 조선-홍성인 연구위원/3299-3044, 일반기계-박광순 선임연구위원/3299-3293, 철강-정은미 연구위원/3299-3064, 석유화학-남장근 연구위원/3299-3294, 섬유-이임자 부연구원/3299-3108, 가전-이경숙 연구위원/3299-3055, 정보통신기기-김종기 연구위원 / 3299-3106, 디스플레이-서동혁 연구위원/3299-3032, 반도체- 주대영 연구위원/3299-3190.

○ 수출은 선진시장 수요는 정체 또는 감소가 예상되나 신흥시장이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국내 자동차에 대한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전년대비 10.4% 증가한 약 748억 달러(자동차부품 포함)에 달할 것으로 전망

○ 생산은 내수가 정체되나 수출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.4% 증가한 약 475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
○ 수입은 FTA 확대와 중저가 모델 지속 투입으로 국내차와 수입차간의 가격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0.0% 증가한 112억 달러(자동차부품 포함)를 기록할 전망

## <조선산업>

○ 2011년 하반기 이후 시황이 냉각되면서 대부분 선종별 수주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, 고유가 유지가 가능할 경우 시추선에 이은 후속 해양플랜트의 발주는 이어질 전망

○ 생산은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상반기에 금년 동기대비 약 13.1% 감소한 665만 CGT, 하반기에는 8.7% 감소한 645만 CGT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, 연간 전체로는 10.9% 감소한 1,310만 CGT로 전망

○ 수출은 고선가 시기의 선박 건조 종료와 선박 건조물량 감소로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9.9% 감소한 288억 달러, 하반기에는 6.4% 감소한 209억 달러로서 연간 8.4% 감소한 496억 달러로 예상

○ 수입은 해외 반입 선박 감소와 중국 현지공장에서 가공한 블록의 도입이 줄어들면서 8.9% 감소한 42억 달러에 머물 전망

## <일반기계산업>

○ 내수는 노후기계설비 교체수요와 그린수송장비 등 7대 신성장동력 생산장비 개발을 위한 신규투자 예상 등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수요기업들의 신규투자 위축으로 증가율이 약 4% 수준에 그칠 전망

○ 수출은 세계경기의 성장세 둔화, 특히 한·EU FTA 발효에 따라 국산기계류의 수입수요가 확대된 대 EU 수출증가세가 꺾이면서 증가율도 15% 증가 예상

○ 생산은 내수 및 수출이 모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.3%로 한 자리 수 증가에 그칠 전망

○ 수입은 7대 신성장동력 관련 장비와 첨단 기계류 부품 등 경쟁력이 취약한 장비 및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5.3% 증가할 전망

## <철강산업>

○ 내수는 상반기 2,664만톤, 하반기 2,921만톤으로 상저하고 현상을 보이면서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.3% 증가 전망

- 일반기계 및 설비·플랜트용 철강제품인 열연, H형강 등의 수요는 호조를 보이겠지만, 토목건축용인 철근, 궤조의 부진 지속 예상

○ 중국, 인도, 동남아 등 신흥국의 철강 수입수요가 유지되고 국내철강업체들이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되면서 수출은 물량기준 3,037만톤으로 전년 대비 7.3% 증가, 금액기준으로는 최초로 400억 달러대에 진입할 전망

○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수요 안정, 신증설 설비의 공급여력 확대에 힘입어 생산은 전년 대비 4.0% 증가한 7,371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

IO› a =µ o/ 67 Ê =µ* Á:HW
=% ,-V PW * :L< =µ* ck2DE =µ7 ¹º
™ y ´ la O ¶~ «Ý ™la( ¶
~Š Ã …†

<2¹

=( ø \ d¾ · K Õ 1Ü U Ÿ =% =
> 8/. 01 š I õ©Š e Ula ¹º ™
8/ ¸ | 8 9 |•

=>7 `/ |}. L P€. š ‘ ( ± bW f !la Ú`
1Û Ê => / —•* QR Ã 2( /MN â• š
¡o Ì‡a «Ý ™la 8/Y

ò 7 IOJK/ g Or QR k~2: ¹º
™la Ž7 8/9 |•

=µ7 ø \ d `/ — Ã

시장입지 강화와 신규 태블릿PC 및 노트북 출시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.9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○ 생산은 내수와 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예상되나 국내 휴대폰 및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 확대로 인해 전년대비 7.0% 정도의 증가세에 머무를 전망

○ 수입은 외산 신규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의 출시 확대로 스마트기기의 수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9.5% 증가할 전망

## <디스플레이 산업>

○ 내수는 기저효과가 작용하는데다 주요 세트제품 구매 유보층의 수요 회복으로 전년비 11% 증가할 전망이지만, 환율변동, 재고물량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상존하여 실질기준 내수 변화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

○ 수출은 패널업체들의 공격적 투자 억제, 올림픽 특수 기대감, 신흥시장 세트제품 수요증가세 지속 등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2012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수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인 가운데, 약 7% 성장 예상

○ 생산은 수출이 다소 호전되고 업계의 생산능력 조정과 계절적 성수기가 겹치면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패널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약 5% 증가할 전망

○ 수입은 수출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가 동반되고 최근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스마트기기용 패널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8% 이상 증가할 전망

## <반도체 산업>

○ 내수는 모바일기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(AP)를 비롯하여 스마트자동차, LED조명, 태양광, 풍력 등에 필요한 전력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여 5.7% 증가할 전망

○ 수출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처리하여 PC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고, 또한 클라우드 수요가 확대되어 D램 시장이 더욱 축소되고 있어 1.9% 감소할 전망

○ 생산은 국내 메모리 업체들이 해외 경쟁업체들과 최소 6개월 이상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생산증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수출 부진으로 2.1% 감소할 전망

○ 수입은 태블릿PC 및 스마트폰용의 고주파IC, 전력용 반도체 및 LED칩의 아날로그반도체 등의 수입 증가로 4.6% 증가할 전망

## <표 Ⅱ-6 > 2012년 주요 산업별 생산 전망

단위 : %

| | 2010 | 2011 | | | 2012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상반기 | 하반기 | | 상반기 | 하반기 | |
| 자 동 차 (천대) | 4,272 (21.6) | 2,303 (9.7) | 2,286 (5.2) | 4,589 (7.4) | 2,338 (1.5) | 2,409 (5.4) | 4,747 (3.4) |
| 조 선 (만CGT) | 1,491 (3.5) | 765 (1.6) | 706 (-4.7) | 1,471 (-1.3) | 665 (-13.1) | 645 (-8.6) | 1,310 (-10.9) |
| 일 반 기 계 (10억원) | 81,440 (29.7) | 43,678 (15.1) | 46,883 (7.8) | 90,561 (11.2) | 46,429 (6.3) | 51,648 (10.2) | 98,077 (8.3) |
| 철 강 (천톤) | 65,942 (15.9) | 36,338 (11.1) | 34,569 (4.0) | 70,907 (7.5) | 35,591 (-2.1) | 38,123 (10.3) | 73,714 (4.0) |
| 석 유 화 학 (천톤) | 21,363 (2.0) | 10,418 (-1.3) | 11,415 (3.9) | 21,833 (2.2) | 10,574 (1.5) | 11,609 (1.7) | 22,183 (1.6) |
| 섬 유 (천톤) | 1,962 (7.5) | 1,027 (6.4) | 1,083 (8.7) | 2,110 (7.5) | 1,070 (4.2) | 1,146 (5.8) | 2,216 (5.0) |
| 가 전 (10억원) | 36,496 (8.8) | 18,735 (2.6) | 18,773 (3.0) | 37,508 (2.8) | 19,897 (6.2) | 19,117 (1.8) | 39,014 (4.0) |
| 정보통신기기 (10억원) | 67,518 (-1.2) | 35,473 (8.9) | 35,706 (2.2) | 71,179 (5.4) | 37,123 (4.7) | 39,035 (9.3) | 76,158 (7.0) |
| 디스플레이 (10억원) | 39,689 (8.5) | 17,005 (-10.8) | 19,016 (-7.8) | 36,021 (-9.2) | 17,637 (3.7) | 20,198 (6.2) | 37,835 (5.0) |
| 반 도 체 (10억원) | 61,251 (48.6) | 31,287 (4.3) | 30,160 (-3.5) | 61,447 (0.3) | 28,770 (-8.0) | 31,370 (4.0) | 60,140 (-2.1) |

주 : 1) ( )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.

2) 자동차는 완성차, 조선은 건조량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 기준으로 실질기준이고, 나머지는 명목기준.

## <표 Ⅱ-7 > 2012년 주요 산업별 내수 전망

단위 : %

| | 2010 | 2011 | | | 2012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상반기 | 하반기 | | 상반기 | 하반기 | |
| 자 동 차 (천대) | 1,570 (7.3) | 798 (4.9) | 808 (-0.3) | 1,606 (2.3) | 795 (-0.4) | 816 (1.0) | 1,611 (0.3) |
| 조 선 (만CGT) | 105 (4.0) | 48 (-4.0) | 50 (-9.1) | 98 (-6.7) | 43 (-10.4) | 45 (-10.0) | 88 (-10.2) |
| 일 반 기 계 (10억원) | 73,906 (22.5) | 36,610 (4.9) | 39,460 (1.2) | 76,070 (2.9) | 37,137 (1.4) | 41,811 (6.0) | 78,948 (3.8) |
| 철 강 (천톤) | 52,390 (15.4) | 29,845 (10.4) | 25,831 (1.9) | 55,676 (6.3) | 26,639 (-10.7) | 29,210 (13.1) | 55,849 (0.3) |
| 석 유 화 학 (천톤) | 10,254 (8.0) | 5,356 (6.0) | 5,367 (3.2) | 10,723 (4.6) | 5,249 (-2.0) | 5,496 (2.4) | 10,745 (0.2) |
| 섬 유 (천톤) | 1,565 (8.6) | 858 (6.1) | 816 (7.9) | 1,674 (7.0) | 896 (4.4) | 856 (4.9) | 1,752 (4.7) |
| 가 전 (10억원) | 26,658 (3.7) | 13,834 (3.6) | 13,715 (3.1) | 27,549 (3.3) | 14,563 (5.3) | 14,225 (3.7) | 28,788 (4.5) |
| 정보통신기기 (10억원) | 45,403 (25.5) | 26,342 (19.5) | 25,950 (11.1) | 52,292 (15.2) | 27,770 (5.4) | 29,021 (11.8) | 56,791 (8.6) |
| 디스플레이 (10억원) | 7,661 (-16.3) | 2,985 (-19.6) | 3,699 (-6.4) | 6,684 (-12.8) | 3,271 (9.6) | 4,146 (12.1) | 7,417 (11.0) |
| 반 도 체 (10억원) | 38,628 (8.6) | 19,174 (2.6) | 18,017 (-9.6) | 37,191 (-3.7) | 19,317 (0.7) | 20,004 (11.0) | 39,321 (5.7) |

주 : 1) ( )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.

2) 자동차는 완성차, 조선은 건조량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 기준으로 실질기준이고, 나머지는 명목기준.

## <표 Ⅱ-8 > 2012년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

단위 : 백만 달러, %

| | 2010 | 2011 | | | 2012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상반기 | 하반기 | | 상반기 | 하반기 | |
| 자 동 차 | 54,374<br>(46.5) | 32,665<br>(27.5) | 35,096<br>(22.1) | 67,761<br>(24.6) | 36,258<br>(11.0) | 38,565<br>(9.9) | 74,823<br>(10.4) |
| 조 선 | 49,112<br>(8.8) | 31,905<br>(29.9) | 22,305<br>(-9.1) | 54,210<br>(10.4) | 28,750<br>(-9.9) | 20,880<br>(-6.4) | 49,630<br>(-8.4) |
| 일 반 기 계 | 31,861<br>(35.1) | 20,176<br>(36.0) | 20,447<br>(20.1) | 40,623<br>(27.5) | 23,036<br>(14.2) | 23,809<br>(16.4) | 46,845<br>(15.3) |
| 철 강 | 28,875<br>(25.4) | 17,580<br>(34.8) | 20,205<br>(27.6) | 37,785<br>(30.9) | 20,228<br>(15.1) | 22,506<br>(11.4) | 42,734<br>(13.1) |
| 석 유 화 학 | 35,715<br>(30.0) | 22,510<br>(27.7) | 23,358<br>(29.1) | 45,868<br>(28.4) | 25,390<br>(12.8) | 26,675<br>(14.2) | 52,065<br>(13.5) |
| 섬 유 | 13,899<br>(19.5) | 7,967<br>(21.1) | 7,966<br>(8.8) | 15,933<br>(14.6) | 8,414<br>(5.6) | 8,763<br>(10.0) | 17,177<br>(7.8) |
| 가 전 | 12,817<br>(27.4) | 6,703<br>(4.2) | 6,870<br>(7.6) | 13,573<br>(5.9) | 7,410<br>(10.5) | 6,960<br>(1.3) | 14,370<br>(5.9) |
| 정보통신기기 | 35,233<br>(-6.9) | 18,081<br>(9.3) | 18,367<br>(-1.7) | 36,448<br>(3.4) | 18,894<br>(4.5) | 20,057<br>(9.2) | 38,951<br>(6.9) |
| 디스플레이 | 31,925<br>(27.1) | 14,805<br>(-2.9) | 15,996<br>(-4.1) | 30,801<br>(-3.5) | 15,462<br>(4.4) | 17,588<br>(9.9) | 33,048<br>(7.3) |
| 반 도 체 | 50,707<br>(63.4) | 24,745<br>(4.7) | 25,185<br>(-7.0) | 49,930<br>(-1.5) | 23,510<br>(-5.0) | 25,450<br>(1.1) | 48,960<br>(-1.9) |
| 10대 산업 합 계 | 344,518<br>(26.6) | 197,137<br>(20.1) | 195,795<br>(8.5) | 392,932<br>(14.1) | 207,352<br>(5.2) | 211,251<br>(7.9) | 418,603<br>(6.5) |

주 : 1) ( )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.
2) 수치는 통관 기준.

## <표 Ⅱ-9 > 2012년 주요 산업별 수입 전망

단위 : 백만 달러, %

| | 2010 | 2011 | | | 2012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상반기 | 하반기 | | 상반기 | 하반기 | |
| 자 동 차 | 8,488<br>(44.6) | 5,013<br>(25.5) | 5,210<br>(16.0) | 10,223<br>(20.4) | 5,499<br>(9.7) | 5,745<br>(10.3) | 11,244<br>(10.0) |
| 조 선 | 5,214<br>(7.0) | 2,020<br>(-11.0) | 2,572<br>(-12.6) | 4,592<br>(-11.9) | 1,814<br>(-10.2) | 2,371<br>(-7.8) | 4,185<br>(-8.9) |
| 일 반 기 계 | 25,347<br>(17.0) | 13,757<br>(12.8) | 13,705<br>(4.2) | 27,462<br>(8.3) | 14,327<br>(4.1) | 14,590<br>(6.5) | 28,917<br>(5.3) |
| 철 강 | 30,840<br>(28.6) | 18,348<br>(19.2) | 17,170<br>(11.1) | 35,518<br>(15.2) | 16,510<br>(-10.0) | 16,204<br>(-5.6) | 32,713<br>(-7.9) |
| 석 유 화 학 | 13,301<br>(39.5) | 8,674<br>(32.1) | 8,756<br>(30.0) | 17,430<br>(31.0) | 9,437<br>(8.8) | 9,649<br>(10.2) | 19,086<br>(9.5) |
| 섬 유 | 9,924<br>(34.0) | 5,863<br>(34.3) | 7,456<br>(34.2) | 13,319<br>(34.2) | 6,496<br>(10.8) | 8,458<br>(13.4) | 14,954<br>(12.3) |
| 가 전 | 4,305<br>(10.6) | 2,251<br>(3.4) | 2,280<br>(7.2) | 4,531<br>(5.2) | 2,480<br>(10.2) | 2,310<br>(1.3) | 4,790<br>(5.7) |
| 정보통신기기 | 16,103<br>(27.6) | 9,788<br>(32.1) | 9,204<br>(5.9) | 18,992<br>(17.9) | 10,250<br>(4.7) | 10,550<br>(14.6) | 20,800<br>(9.5) |
| 디스플레이 | 4,209<br>(23.1) | 2,071<br>(6.2) | 2,097<br>(-7.2) | 4,168<br>(-1.0) | 2,185<br>(5.5) | 2,327<br>(11.0) | 4,512<br>(8.3) |
| 반 도 체 | 31,137<br>(17.0) | 15,961<br>(10.3) | 16,379<br>(-1.8) | 32,340<br>(3.9) | 16,640<br>(4.3) | 17,190<br>(5.0) | 33,830<br>(4.6) |
| 10대 산업 합 계 | 148,868<br>(24.2) | 83,746<br>(18.3) | 84,829<br>(8.6) | 168,575<br>(13.2) | 85,638<br>(2.3) | 89,394<br>(5.4) | 175,032<br>(3.8) |

주 : 1) ( )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.
2) 수치는 통관 기준.